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박 사 학 위 청 구 논 문

게리 스나이더의 심층 생태학적
사유에 대한 연구



2017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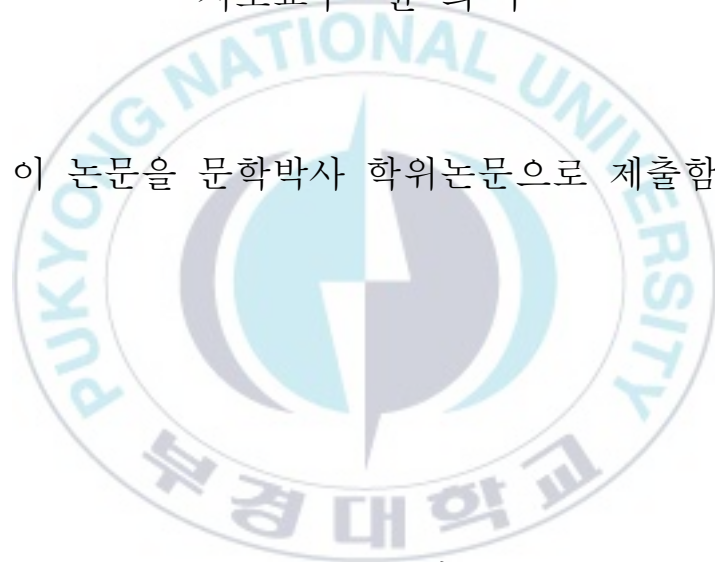
신 명 화

문 학 박 사 학 위 청 구 논 문

계리 스나이더의 심층 생태학적 사유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윤 희 수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신 명 화

신명화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25일

위 원 장 문 학 박 사 정 해 룡 (인)

위 원 문 학 박 사 박 령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윤 준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송 호 림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윤 희 수 (인)

목 차

Abstract	ii
I. 서론	1
II. 생태적 재앙에 관한 문제 제기	8
III. 생태적 선불교와 미국 원주민의 신화	43
IV. 생물지역주의: 거북섬에서 재거주하기	78
V. 결론	106
인용 문헌	109

A Study on Gary Snyder's Deep Ecological Thoughts

Shin, Myung Hwa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Gary Snyder's deep ecological thoughts and vision through a close reading of his poems and essays. The analysis of his works will show Snyder's life-long efforts and practices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as "a spokesman for wild nature."

Snyder blames Judeo-Christian anthropocentrism, rationalism and dualism of Western culture, techno-science civilization, and capitalism as the main culprit of unprecedented human destruction of nature and the on-going environmental disaster. Judeo-Christian anthropocentrism allows mankind unlimited warrant to exploit and use nature for the sake of human comfort and development. The arrogant tradition of anthropocentrism and excessive rationalism justifies and reinforces the dominance of humans over nature and makes humans pursue self-interest above all.

In the Native American culture, in the Zen Buddhism, and in the Paleolithic society, Snyder seeks solutions that can stop more severe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save both mankind and nature from potential ecological catastrophes.

In particular, Snyder pursues the interdependence and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all life forms in nature from the Buddha's central doctrine of

Causality, or dependent co-arising. He also emphasizes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beings in the world since nothing exists in isolation, independent of other life. Therefore, all the beings exist in mutually supplementary relationship. More significantly, Snyder shares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living beings on a biological level as shown in the food chain and food-web.

Snyder puts bioregionalism and reinhabitation movement into practice in the Turtle Island, which is North America originally named by Native Americans in order to realize the ideal life-community where man and nature co-exist.

Chapter I examines the poems which warn us of ecological disaster. In *Myths and Texts* and *Turtle Island*, Snyder criticizes the modern civilization for devastating Mother Nature.

Chapter II deals with the alternative course of the ecological crisis. Snyder tries to seek the solution in Native American's myths and the Zen Buddhism. In the sequence of "Burning," he shows the interconnectedness and interpenetration of all beings and ecological food-web as figured in the image of Indra's net.

In chapter III, poems showing ecological democracy in the ideal life community are analyzed in detail. In *Turtle Island*, Snyder depicts the interdependency and co-existence of human and nonhuman nature in an ideal life-community.

In conclusion, Snyder shows in his poems and essays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He is practicing the ecocentric egalitarianism that draws us to reject the human's privilege over nature and respect all beings including humans in their own right as parts of the whole without hierarchies of species.

I. 서론

오늘날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 훼손으로 인해 전례없는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했다. 부동산 개발과 벌목으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 위험한 수준에 이른 표토의 손실,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수산 자원의 남획, 핵폐기물, 증가하고 있는 동식물의 멸종 등은 현재 우리 인간들에게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며 공포이다.

에렌펠드(David Ehrenfeld)는 “지금까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도도하고 교만한 인간중심주의의 전통 속에서 인간은 인간의 권력 강화를 찬미하고, 심지어 공공의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대중의 이익보다도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해왔다. 우리는 이제 자연을 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Love 재인용 226)고 역설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은 물론 인간 이외의 종들까지도 절멸시키는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게 될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Glottfelty xx).

이와 같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해결책으로 “생태학”이 대두되고 있다. 생태학¹⁾이란 ‘집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개체가 사는 환경, 즉 생물권을 가리킨다. 생태학은 자연의 “생명의 망”(web of life)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생태학의 대두와 더불어 문학을 생태학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시도는 생태문학, 생태비평이란 이름으로 동시대 주요한 문학 비평 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루커트(William Rueckert)는 1978년 「문학과 생태학」이라는 논문에서 생태비평(Ecocriticism)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문학이 생태계와도 같이 창조적이고 합동적인 거대한 에너지의 보고”(105)라고 보며, 생태운동과 문학비평을 접목하는 시도를 했다. 생태 문학은 생태학 그 자체보다는 생태학의 기본 정신을 수용하고 그 정신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1) ‘생태학(ecology)’의 어원은 ‘오이콜로지아(oekologia)’라는 그리스어로 ‘오이코스(oikos)’와 ‘로지아(logia)’의 합성어로 ‘집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다. 생태문학은 문학작품을 통해 생태주의를 표현하는 문학이다.

미국의 환경 운동가이며 생태주의자인 코모너(Barry Commoner)는 생태주의의 원칙을 네 가지로 밝힌다. “첫째, 모든 생물은 다른 모든 생물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둘째, 모든 것은 어디론가 자리를 옮길 뿐 이 세계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의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그 모습을 바뀌어 생물체 안의 생명 과정에 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것은 다만 한 장소로 옮겨 갈 따름이다. 셋째, 자연이 좀 더 알고 있다. 즉 현재 생물의 조직 또는 자연 생태계의 구조는 엄격하게 선별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조직이나 구조도 현재의 그것보다 더 낫지 않다는 의미에서 가장 최선의 상태에 있다. 넷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얻어지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김옥동 재인용 33)

생태문학은 코모너의 생태주의 원칙을 문학에서 표방하며, 작금의 생태적 위기를 초래한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를 비판하며,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타파하고 생태중심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생태중심적인 심층생태학(Deep Ecology)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며 인간도 생명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간주한다. 심층생태학자인 내스(Arne Naess)와 세션즈(George Sessions)는 “심층생태론에서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과 생명체의 다양성과 풍요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근본적 배경은 자연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중심주의의 타파”(Devall & Sessions 70-71)라 할 것이다. 심층생태학에서는 인간과 자연 환경을 분리하지 않으며,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대등한 존재이며 전일적(holistic) 존재라고 본다. 심층생태학은 세상을 고립된 물체의 집합체로 여기지 않고, 근본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하는 현상의 네트워크로 여긴다. 심층생태학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을 생명의 그물망에서 단지 하나의 특별한 가닥으로 간주한다(Capra 20).

이러한 심층생태론적 관점들을 기본 바탕에 두고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 1930-)의 시와 에세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심층생태적 사유와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스나이더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그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와 환경 파괴의 주범이 인간임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다. 스나이더는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상호공존하고 상호의존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여긴다. 그의 이런 심층생태적 사고는 오늘날의 심각한 환경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생태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유의미한 비전을 제시한다.

풀리처(Pulitzer)상과 볼링겐(Bollingen)상을 수상한 시인이며 산문가인 스나이더는 1960년대 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심층생태학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피터 버그(Peter Berg)와 레이먼드 대스만(Raymond Dasmann), 짐 닷지(Jim Dodge) 등과 함께 스나이더는 생태중심적 생물지역주의(econcentric bioregionalism)운동을 주도해 왔다. 그는 일생에 걸쳐 심층생태학 운동(Deep Ecology movement)의 부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스나이더와 내스는 심층생태학 운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Sessions xii). 심층생태학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스나이더의 심층생태론에는 선불교와 도교를 비롯한 동양사상과 미국 원주민의 생활 방식과 신화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십여년 동안 일본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귀국한 후 1970년대부터 생태운동(Ecology Movement)에 깊이 관여하게 된 스나이더는 생태주의 시인과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는 1974년 『거북섬』(*Turtle Island*)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생동안 시를 통해서 사회적인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의 주장은 생태주의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시를 통해서 그는 사회와 자연의 생태학적인 관계와 개인의 자연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는 생태적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는 방법은 인간들의 사랑이 아닌 자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주장한다.

내 시는, 한 단계에서는, 사회와 자연의 생태학적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의식과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몇몇 시들에서는 자연 속에서 사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 주지 못한다. 우리는 이 지구와 더

불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사랑에 관한 문제이다. 서구에서 보는 인간들의 사랑이 아닌, 동물, 바위, 흙, 모든 것에까지 확장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이 지구를 끌장낼 수 있다. (RW 4)²⁾

스나이더는 “야생의 자연의 대변인”(RW 49)으로서 자연 파괴로부터 자연을 구하기 위한 규범과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시인으로서 나는 지구에 대해 가장 고대적 가치를 지니려고 한다. 고대적 가치는 후기 구석기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땅의 비옥도, 동물들의 마술, 고독 속에서 발견되는 힘의 비전, 무서운 시작과 재탄생, 사랑과 춤의 황홀경, 부족의 혼란 일. 나는 역사와 야생을 염두에 두려고 한다. 나의 시는 사물의 진정한 척도에 접근할 것이고, 우리 시대의 불균형과 무지에 대해 반대한다. (M&T viii)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나이더는 “야생의 자연의 대변인”(RW 49)으로 자처하면서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절멸의 위기에 처한 자연 생태계를 지켜내고자 하는 시인의 책무를 밝힌다.

심층생태적 사유와 생태계 위기에서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스나이더의 대안적 사고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우선 스나이더가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서구의 인간중심적 사고와 자연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한 유대 기독교,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시각을 연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스나이더의 에세이 「네 가지 변화」(“Four Changes”)와 「별목」(“Logging”) 연작시들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스나이더는 환경 파괴와 생태적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선불교와 미국 원주민의 신화를 제시한다. 스나이더는 아힘사(ahimsa)³⁾를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실천하고자 한다. 또한 인드라 망(Indra's net)의 개념으로 볼 때 자연과 인간이 상호관통

2) 본 논문에서는 스나이더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줄여서 표기한다.

Axe Handles=AH, A Place in the Space=PS, Back on the Fire=BF, Earth House Hold=EHH, Myths & Texts=MT, No Nature=NN, Old Ways=OW, Real Work=RW, Turtle Ireland=TI, Turtle Talk=TT, The Practice of the Wild=PW, Wild Mind=WM

3) 아힘사는 불교의 첫 번째 계율로서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말라”이다.

하고 상호의존한다고 보는 불교적 관점이 어떻게 생태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지를 본 연구자는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냥」(“Hunting”)과 「불」(“Burning”)이라는 연작시편과 「미각의 노래」(“Song of the Taste”)와 「까치의 노래」(“Magpie’s Song”) 등의 시와 불교 생태적 관점을 피력한 에세이를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미국 원주민들이 한때 ‘거북섬’으로 불렸던 북미 대륙에서 실천하고 있는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스나이더는 생물지역주의 운동을 통해 장소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재거주(reinhabitation)를 실천하고 있다. 「이전에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What Happened Here Before”), 「아이들을 위하여」(“For the Children”), 「인종식물학」(“Ethnobotany”)과 「야생 버섯」(“The Wild Mushroom”) 등의 시를 살펴봄으로써 스나이더가 재거주를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생태적 민주주의를 탐구한다. 거북섬에서의 재거주 운동은 그가 이론과 주장에만 머물지 않고 몸소 실천하는 생태주의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심층 생태 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

스나이더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반힐(David Barnhill)은 「위대한 지구 승가: 게리 스나이더의 공동체로서의 자연에 대한 견해」(“Great Earth Sangha: Gary Snyder’s View of Nature as Community”)에서 선불교의 인드라 망에서의 모든 존재의 존재론적 네트워크 관계와 먹이사슬(food web)의 관점에서 스나이더의 시학을 분석하였으며, 스나이더의 생물지역주의를 불교적 관점에서 하나의 승가(sangha)로 보고 생물지역주의가 생태계의 위기 극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했다. 머피(Patrick Murphy)는 『게리 스나이더 이해하기』(Understanding Gary Snyder), 『도보여행을 하기 위한 장소』(A Place for Wayfaring)라는 저서에서 스나이더의 전 작품과 에세이를 분석하고 스나이더의 작품에 나와 있는 북미 인디언의 신화와 생활 방식, 불교적 관점에서의 스나이더의 시와 에세이를 분석하였다. 스튜딩(Bob Steuding)은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에서 스나이더의 문체와 주요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스튜딩은 미국 원주민의 신화적인 요소와 불교

적 요소가 있는 스나이더의 작품들이 어떻게 생태학적으로 연관되는지를 다루었다. 몰스워쓰(Charles Molesworth)는 「『거북섬』의 정치적·시적 비전」(“The Political and Poetic Vision of *Turtle Island*”)에서 『거북섬』(*Turtle Island*)에 제시된 스나이더의 정치적·시적 비전을 연구하였다. 몰스워쓰는 『거북섬』이 스나이더에게 있어서 물리적 환경과 유토피아적 비전에 대한 은유로 본다. 또한 스나이더가 『거북섬』을 책임감의 윤리와 궁극적인 목적의 윤리 사이를 중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거북섬』이 미래의 서정시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역설한다. 알몬(Bert Almon)은 「게리 스나이더의 최근의 시에 나타난 불교와 에너지」(“Buddhism and Energy in the Recent Poetry of Gary Snyder”)라는 논문에서 스나이더 시에 드러나는 불교의 자비 개념을 분석하면서 불교의 자비의 대상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이듯이 미국 원주민이 동물들에게 부여하는 평등의 개념과 일맥상통함을 역설했다. 야마자토(Katsunori Yamazato)도 「이러한 위기에서 존재하는 법: 『거북섬』에서의 게리 스나이더의 문화 간의 비전」(“How to Be in This Crisis: Gary Snyder’s Cross-Cultural Vision in *Turtle Island*”)에서 스나이더의 시를 불교의 공(void) 사상과 인드라 망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또한 불교와 생태계가 서로 자양분을 준다고 역설하며(233), 고전적인 서구의 생태학에서 상호관통이라는 불교의 개념이 『거북섬』(*Turtle Island*) 전체에 흐른다고 피력한다.

국내에서 스나이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윤희수는 「생태주의적 사고의 두 가지 유형: 스나이더와 올리버의 시」라는 논문에서 두 시인의 생태주의적 사고와 차이점을 연구하면서 “스나이더가 언어의 한계에 대한 성찰과 언어적 욕망과 억제를 통하여 인간중심적 태도를 지양하고 인간외적 대상, 곧 자연에 대한 겸허를 실천”(36)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자광은 「생물지역주의의 위험성과 가능성」이라는 논문에서 생물지역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생물지역에는 생태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중심이 되지만, 생물지역의 구성원이 아닌 지역과 구성원에게는 배타적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김은성은 「게리 스나이더의 초기 작품 읽기-이분법적 사고의 틀

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라는 논문에서 스나이더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재정립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 세계를 위한 새로운 정치 경제 그리고 윤리의 패러다임”(424)을 만든다고 한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스나이더의 심층생태적 사유가 미국 원주민의 신화와 생활 방식, 선불교의 인드라 망 개념과 공(void) 사상에 기초한 자연과 인간의 상호의존, 상호관통의 개념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나이더가 그의 시에서 서구의 심층생태학과 자연친화적인 동양사상과 불교의 연기론을 융합함으로써 생태학의 문화적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스나이더는 자연에 대한 존중과 겸허에서 비롯된 생태중심적 평등과 재거주를 통해 장소를 중심으로 한 생태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였으며,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지양하고 불교의 일체의식과 만물에 대한 자비와 연기론을 생태학에 접목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위계적, 계급적 사고의 틀을 해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스나이더의 생태시의 모형(prototype)을 분석함으로써 생태적 위기에 대한 진지한 각성과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생태적 재앙에 관한 문제의식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비롯된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근대 과학의 발달은 더욱 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데 앞장서고 정당화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더욱 강화한 유대/기독교의 인간 중심주의, 서구 철학과 문명에 기초한 이분법적 사고방식, 과학기술문명, 자본주의 등이 오늘날 인류에게 생태적 재앙을 가져왔다.

스나이더 또한 위에서 언급한 생태계 파괴의 주범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 그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에세이 「네가지 변화」(“Four Changes”)에서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 지구의 환경위기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처방과 비전을 밝히고 있다. 그는 환경위기와 관련해서 ‘인구’(population), ‘환경오염’(pollution), ‘소비’(consumption)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변화’(transformation)를 제시한다. 스나이더는 첫 번째로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지적하며 낙태를 합법화하고 정관수술 장려와 같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구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극단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최적의 인구⁴⁾는 야생 생물의 개체수와 지역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최상의 조건이다(TI 94). 인구를 줄이자는 그의 주장은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인구폭발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는 심층생태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심층생태학자들은 인구 감소가 산업 사회에서 최우선시 될 것을 주장한다(Naess 73).

두 번째로 환경오염의 주범은 매연과 잘 분해되지 않는 생활 쓰레기, DDT, 핵폐기물, 바이러스, 세균 등과 같은 화학 물질과 독성 물질이다. 스나이더는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이 이러한 환

4) 최적의 인구는 도대체 몇 명을 말하는지 스나이더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중시하는 스나이더가 자연의 여타 생물체의 생명을 중시하면서, 낙태를 합법화할 것을 주장한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과격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오염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경고한다. 생태계 역시 수많은 생물들이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고통 받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절멸되어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스나이더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은 양으로 더 많이 사용하라”(TI 94)고 권유한다. 심층생태학적 접근법에서도 오염의 심각성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모든 종(species)과 시스템의 생명 조건을 포함한 전체 생명에 초점을 두는 생물권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최우선 과제는 단기간의 피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과 싸우는 것이다. 선진국이 제 3세계에 오염을 수출하는 것은 인류에 반하는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생명에 반하는 범죄라고 본다(Naess 71-72).

러브록(James Lovelock)의 가이아 가설(Gaia hypothesis)⁵⁾에 의하면, 대기와 해양, 그리고 지구 표면의 물리적 화학적 조건은 생명체의 존재에 편리하도록 알맞게 맞춰져 왔고 활발히 맞추어지고 있다. 가이아 가설은 생명체는 지구의 조건에 적응하고 지구의 조건은 각각의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전통적인 사고와는 대조적이다. 지난 300년 동안 인간 종과 인간이 길들인 가축은 전체 생물량의 비율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오염과 열대 우림의 막대한 개간과 같은 생물지역에 대한 인간의 개입은 연약한 지구의 항상성(homeostasis)⁶⁾을 파괴한다. 러브록은 지구 유

5) 가이아 이론이란 1978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그의 저서 『가이아: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에서 소개한 이론이다. 여기서 가이아(Gaia)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여신의 이름으로 게(Ge)라고도 하는데, 만물의 어머니로서 땅을 인격화한 것이다. 가이아 이론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환경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어 유기적 존재로서의 ‘지구’를 구성한다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http://wideways.tistory.com/115>>.

6) 가이아 이론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환경은 능동적인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상호 작용 안에서 일정한 균형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는 특히 대기권과 해양권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써, 대기 중의 산소의 양이 항상 일정한 것과, 기온과 바닷물의 온도가 생물이 살 수 있는 적절한 정도에서 유지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생물계와 물리화학적 무생물계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먹는 식물과 산소를 먹는 동물의 개체 수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그 영향은 생물계뿐만이 아니라 무생물계, 즉 우리가 사는 환경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가이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자행하고 있는 환경 파괴는 지구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행위이며 이는 곧 무생물계와 생물계의 공통적인 파멸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지구 온난화다<<http://wideways.tistory.com>>

기체의 “중요한 기관”인 어느 한 기관이 파괴된다면 지구 전체(가이아)가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Devall & Sessions 123). 지구의 항상성은 지구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환경오염이 이 균형을 깨뜨리고 있어서 러브록은 인간이 지구에 해를 가하는 “인간의 활동을 억제”하고 “현명한 집사로서 가이아에 살기”(Devall & Sessions 123)를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스나이더는 인간의 과도한 소비를 환경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자원의 남용,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은 인간은 물론 생태계 내의 동식물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대인들은 풍요와 과학 발전이 이룩한 영원한 진보의 꿈을 꾸고 있지만, 스나이더는 인간에게 있어 진정한 풍요는 소비가 필요 없는 상태라고 한다(TI 97). 스나이더는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소비 형태를 지양하고 단순한 삶의 형태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암으로 규정하고, 경제학도 생태학의 한 작은 분야로 인식하고서 생산/분배/소비의 문제는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절제와 세련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TI 97-98).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 분배 소비활동이 균형을 맞추는 상태를 절정(climax)이라고 한다. 절정의 상태인 자연은 자연에서 소비되고 생산되는 모든 것이 다른 곳으로 소비되거나 버려지지 않고 다 분해되어서 다시 땅 속에서 다른 생명체가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된다. 자연은 스스로 재활용을 하면서 유기적 순환구조로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는 시스템이다. 스나이더도 이런 자연의 절정 상태를 우리 인간들의 소비 형태로 바꾼다면, 더 이상의 자원의 남용과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스나이더는 자연을 통제하고 정복하는 모든 노골적인 개념과 진보의 신화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둘 다를 정치적으로 배격하라고 주장한다(TI 97-98). 심층생태학에서는 어떠한 자연물도 자원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고립된 생명체나 지역적 상황에 대해서만 고려하지 않고 생태계에 대한 접근에 역

점을 둔다(Sessions 72).

스나이더는 생태계 파괴의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그 처방을 내린 후, 네 가지 변화 중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변화’(transformation) 즉, 인간의 자연에 대한 ‘변화된 의식’을 주장한다. 그는 인간이 앞으로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난 5천년에 걸쳐 내려온 도시 위주의 문화적 전통을 생태학적으로 민감하며, 조화를 지향하는, 야성적인 성격을 띤, 과학적 이자 영적인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TI 99). 지나치게 발달한 문명이 오히려 문명이 지닌 관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지향적인, 자연을 존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신화와 텍스트』(Myths & Texts)와 『거북섬』(Turtle Island)에 실린 다양한 시들에서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의 과정과 그 원인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루커트(William Rueckert)는 “『거북섬』은 스나이더의 완전한 생태적 비전이며, 『거북섬』에 실린 시들은 정교하고 세련된 생태적 양심과 의식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격찬한다(116). 풀리처상을 수상한 이 시집은 1970년대 미국 사회가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던 때에 환경위기에 대한 대중들의 각성을 불러 일으켰다.

오늘날의 인류가 직면한 전례 없는 생태적 재앙과 생태계 파괴는 인간의 편리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이 채집과 수렵을 하던 원시 문명에서는 인간이 자연에 의존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던 삶이어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 경외심을 품고 있었으며, 자연을 숭배하였다. 구석기 시대 원시 문명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였던 문명이다. 그러나 인간이 땅에 정착해서 농경을 시작하면서 자연에 대한 지배는 시작되었으며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적 사고의 시작과 더불어 자연을 숭배하던 원시 종교도 점차 인간중심적인 종교로 변화하였다.

「절정을 향하여」(“Toward Climax”)에서 스나이더는 농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인간의 문명이 원시문명을 파괴했다고 피력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문명의 생태학적·정치적 영향을 언급한다. 해리슨(Robert Harrison)과 오

엘슐래거(Max Oelschlaeger)에 의하면 농업혁명이 근대문명 발생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농업혁명이 이룩한 사회 경제적 조건들은 근대문명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전제조건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농업 혁명은 인류가 자연에 대한 지배관계와 그에 따른 계급 발생으로 인해 인간들 사이의 지배관계도 형성시켰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계기를 마련한 농업혁명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의 균형 잡힌 세계관을 상실하게 되었다(김은성 재인용 428). 스나이더는 농업혁명이 근대에 와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며 현대에서 자본주의에 의해 확장되는 자연의 파괴는 농경의 시작과 더불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소들은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고,
 베를 짜고, 그릇을 만들고,
 더욱 잘 살게 되고, 계급이 생기고,
 목록을 만들고, 쓰기 시작하고,
 야생식물과 그들의 덕을 잊어버리고
 꿈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크기의 두뇌를 잃어버리고-

 논 벼 작물을 위해서 늪을 고갈시키고, 오지의 숲을 불태우며,
 소처럼 인간을 몬다.
 노예들로 하여금 대선단을 만들게 하고
 부를 위해 강탈한다- 청동기 무기들
 말과 마차-철기-전쟁.

start farming
 cows won't stay away, start herding.
 weaving, throwing clay.
 get better off, get class,
 makes lists, start writing down.

forget wild plants, their virtues
 lose dream-time

lose largest size of brain-

 drain swamp for wet-rice grasses, burn back woods,
 herd men like cows.
 have slaves
 build a fleet
 raid for wealth-bronze weapons
 horse and wagon-iron-war. (TI 83-84)

「절정을 향하여」에서 시의 묘사는 땅의 생성과 생명체의 진화에서 시작해서 원시문명으로 옮겨 간다. 스나이더는 원시 문명이 “인간과 자연세계 사이의 통합에 관한 예리한 감각”(PS 95)으로 구성되었다고 본다. 스나이더는 농경이 원시 문명의 파괴와 인간의 삶의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즉 계급의 발생으로 인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 파괴적인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좋은 땅’이라는 개념은 농업에서 생긴 것이다. 여기서 ‘좋은’은 그 의미가 좁혀져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재배작물을 생산하는 데 알맞은 땅을 말한다. 그래서 그것은 ‘야생적인 땅’의 반대인 개간된 땅을 더 좋아하게 된다. 작물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벌레와 싸우고 새들을 쫓아야 하며 잡초를 쏘아내야 한다. 쉽 없이 날아오르고 기어다니며 굴을 파는 야생 동물들은 정말 우리의 노력을 망쳐버린다. 그렇다고 야생의 자연을 비생산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크고 작은 공동체가 모여 이루어지는 거의 끝없는 모자이크 내에서 어떤 식물도 장소로부터 벗어나 있는 적이 없다. (PW 79)

농업의 시작과 더불어 대부분의 생태중심적 문화들(그리고 종교)은(는) 점차 파괴되었거나 몰락에 의해 지구의 외진 곳으로 내몰렸으며, 결국엔 “문명화된” 문화(라틴어로 *civitas*, 도시들을 의미함)가 되었다. 에텐동산 이야기의 기능 중의 하나가 이런 과정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 셰파드(Paul Shepard)는 농업이 환경에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농업이 사냥과 채집을 대체했기 때문에 농업은 인간이 자연을 보는 방식과 자연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농경주의자들은]

모두 지구 표면을 완전히 인간화하고, 야생을 길들이고, 서식지로부터 동물들을 몰아내고 풍경을 만들어내는 목표를 공유했다. (Sessions 재인용 158)

세션즈(George Sessions)는 농경이 종교도 인간중심적으로 변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세션즈에 의하면 종교적인 전통은 사냥과 채집에서 목초지와 도시의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종교가 변했기 때문에 더 인간중심적이 되었다. 예를 들면, 도교와 다른 동양의 종교들은 고대의 샤머니즘적인 자연 종교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서구의 종교적 전통은 과감하게 야생의 자연과 거리를 두었으며, 그런 과정에서 점차로 인간중심적이 되었다고 한다(Sessions 158-59).

농업 혁명으로 인해 인간중심적인 종교로 발전한 유대/기독교와 자본주의를 「숲이 베어져 무너진다」(“Logging 14”)와 「별목 2」(“Logging 2”)에서 스나이더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비판하고 있다. 유대/기독교 문명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하나님의 초월성을 공유했다고 보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존이 아닌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주장한다. 유대/기독교 문명은 자연을 신의 피조물로 보고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을 착취, 이용, 개발하는 것을 하느님의 섭리로 여겼다. 스나이더는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한, 자연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주범으로 유대/기독교 문명을 고발하고 있다. 유대/기독교에서는 숲을 음란하고 저속한 행동을 하는 곳으로 여겨 숲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합과 같은 이교도들의 숲속에서 벌인 음란한 행위와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숲을 파괴하고, 나무를 베어냄으로써 자연파괴에 앞장서게 되었다. 스나이더는 별목한 나무를 자르는 제재소를 두고 “여호와와 사원”(temples of Jehovah)이라고 부르고 있다(김옥동 51).

숲이 무너진다
 숲이 베어졌다
아합과 시빌레의 숲들이
소나무들, 마디가 있는 가지들
 두툼한 술방울과 씨

이것은 시빌레의 나무들, 신성한 숲
시앰미의 소나무, 하이다의 전나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아테네의 요정들
로마의 자객들에 의해 베어졌다.
옛날이나 지금도 여전히;
교외 주택지 집터를 만들기 위해 베어지고
교외 주택지 집터를 만들기 위해 베어지고
루터와 웨이어하우저 회사의 불도저에 밀어지고
동가리톱과 동력톱에
스칸디나비아 사람들과 핀란드 사람들
고농도 납과 무한궤도 활주
나무들이 베어진다
시내들은 숨이 막히고, 송어들은 죽어서, 길이 생기고.

여호아의 제재소 사원들.
100피트 높이의 작달막한 시커먼 연통이
우리가 태운 살아 있는 수액과 나뭇잎의
연기를 내뿜고 있다
그의 벌름 거리는 코에.

The groves are down
cut down
Groves of Ahab, of Cybele
Pine trees, knobbed twigs
thick cone and seed
Cybele's tree this, sacred in groves
Pine of Seami, cedar of Haida
Cut down by the prophets of Israel
the fairies of Athens
the thugs of rome
both ancient and modern:
Cut down to make room for the suburbs
Bulldozed by Luther and Weyerhaeuser
Crosscut and chainsaw
squareheads and finns
high-lead and cat-skidding

Creeks choked, trout killed, roads.

Sawmill temples of Jehovah.

Squat black burners 100 feet high

Sending the smoke of our burnt

Live sap and leaf

To his eager nose. (*M&T* 15)

무엇보다도 인간중심적인 문명이었던 아테네와 로마문명이 숲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데 앞장섰으며, 숲의 훼손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한 로마문명의 이면에는 로마의 기독교 전파가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의 벌목회사인 웨이어하우저가 주택을 짓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 스칸디나비아인들과 핀란드인들은 임업으로 이윤을 내기 위해 숲을 밀어 버린다. 일본의 노(Noh) 드라마 작가였던 시애미의 소나무가 베어졌고, 하이다족의 전나무가 베어졌다고 언급하는 스나이더의 의도는 벌목이란 것이 동서양 가릴 것 없이, 고대에서부터 자행되어왔으며, 자본주의의 팽배로 인해 오늘날에는 도로와 집을 짓기 위한 부동산 개발로 숲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한다. 스나이더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기독교의 팽창을 가속화시켰으며,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는 현대에 와서는 자본주의로 더욱 더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고발한다. 파편적이지만 스나이더는 선명한 이미지 묘사를 통해 인간의 생태계 파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벌목 2」(“Logging 2”)에서는 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 따온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사업이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계가 섬기는 위대한 여신 디아나의 신전이 멸시를 받고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 시의 제사(epigraph)는 시 전체의 분위기를 암시한다. 이는 기독교의 가부장중심적인 여호아에 대한 유일신 숭배가 우상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워 모든 다른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한 것이다. 다른 모든 신들을 없애고 결국에는 어머니 대자연마저 파괴하게 된다. 스나이더는 숲의 파괴가 결국엔 인간들의 삶도 파괴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출애굽기 34:13

고대 중국의 숲들은 벌목되어
언덕들은 황해 바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사각형의 대들보, 통나무 장작 받침들은
다져 굳힌 땅의 토대 위에 놓여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두께 2인치 폭 4인치짜리 원목들은
시애틀 둘레의 숲이었다.
누군가는 죽이고, 누군가는 짓고, 집과
숲이 파괴되고 세워지고
온 미국이 하나의 고리에 매달려
스스로를 찬양하는 인간들에 의해 불타고 있다.

새로 생긴 그루터기와 잡목 위에 내린 눈,
발전기가 돌면서 덜거덕거려
서리 낀 새벽에
나는 괴로운 꿈에서 깨어,
.....
고물 트럭을 타고 벌목 작업장으로 가서
무한궤도차 시동을 건다.

“소나무는 쇠 발톱으로 구름을 움켜잡고 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용들처럼”
만일 무한궤도차 두 대가 계속 움직이고
아무도 다치지 않으면
매일 25만 평방피트의 일감

*But ye shall destroy their altars,
break their images, and cut down their groves.
-Exodus 34:13*

The ancient forests of China logged
and the hills slipped into the Yellow Sea.

Squared beams, log dogs,
on a tamped-earth sill.
San Francisco 2x4s
were the woods around Seattle:
Someone killed and someone built, a house,
a forest, wrecked or raised
All America hung on a hook
& burned by men, in their own praise.

Snow on fresh stumps and brush-piles.
The generator starts and rumbles
in the frosty dawn
I wake from bitter dreams,
.
Ride off to the show in a crummy-truck
And start the Cat.

“Pines grasp the clouds with iron claws
like dragons rising from sleep”
250,000 board-feet a day
If both Cats keep working
& nobody gets hurt (*M&T* 3-4)

숲과 나무가 “샌프란시스코 두께 2인치 폭 4인치” 또는 “250,000 평방 피트의 일감”이라는 자본주의 시장의 용어로 환산된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의해 계산된 수치들은 우리 인간들이 자연의 숲과 나무를 고유성으로 인식하지 않고 교환 가치로만 여기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명체에 대한 존중감이나 신성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질적 가치로만 평가된다. 슈마허(E. F. Schumacher)는 사물을 동일시하는 것은 곧 사물에 가격을 부여하여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사고가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 가격을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신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동일시는 생명체에서 신성함을 제거해버리는 행위(Schuler 재인용 37)라고 슈마허는 말한다.

스나이더는 직업윤리에 충실했던 금욕주의자 프로테스탄트들(protestants)이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일치시켜서, 땅을 정복하고 착취함으로써 그들이 신의 소원을 실행한다고 여기게 되었다는 베버(Max Weber)의 이론을 해석하여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다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숲과 생명체들을 황폐화시키는 디젤 캐터필러의 소음이 느껴지지만, 이 소음의 본질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물이며 왕이라는 기독교적 믿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를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하고 파괴하는 것을 허용한다(Schuler 17). 온 미국이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고리에 매달려 스스로를 찬양하는 인간들 즉 인간중심주의를 찬양하는 인간들이 숲을 황폐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살 집과 길을 만들기 위해 숲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과 나무들의 집인 숲을 파괴해 버리는 인간의 이기심은 결국 자본주의 논리와 부합한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자본주의 논리는 생태계 보존과는 대척점에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위의 「숲이 베어져 무너진다」(“The Groves Are Down”)와 「벌목 2」(“Logging 2”)에서 스나이더는 서구의 유대/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와 자본주의 논리가 숲의 파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 고발하고 있다.

「벌목 10」(“Logging 10”)에서 스나이더는 인간중심주의가 서양에서만 발전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공자의 말에서 입증한다. “인간은 우주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공자의 인간중심주의 사상을 그는 비난하고 배격한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인 공자의 유교도 인간중심적인 철학이므로 스나이더는 공자의 가르침을 거부한다. “그들이 나무로 무슨 짓을 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유대/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숲의 파괴를 비난한다. 자연에 대한 수탈과 파괴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초월한다.

“인간은 우주의 핵심이며
음식과 색깔과 소리를 즐기려고 태어난
오행의 결과다. . .”

내 등에서 떨어져라 공자야
이제 공자의 가르침은 지겹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저 모든 그루터기들이다:
그들이 나무로 무슨 짓을 했는가?
영혼을 구하고 땅을 움켜쥐려고 혈안이 된 그들 기독교인들
“그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훔칠 거야
 그가 십자가 못에 박히지 않았더라면“
유대인이 지금까지 만든
마지막 멋진 목공예품.

“Man is the heart of the universe
the upshot of the five elements,
born to enjoy food and color and noise. . .”
Get off my back Confucius
There’s enough noise now.
What bothers me is all those stumps:
What did they do with the wood?
Them Xtians out to save souls and grab land
“They’d steal Christ off the cross
 if he wasn’t nailed on”
The last decent carpentry
Ever done by Jews. (M&T 12)

스나이더는 인간외의 모든 것은 열등하며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며, “동물들이 지성과 감성에 있어 너무나 열등해 우리들이 그들의 감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신념”(TI 109)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스나이더는 「벌목 10」에서 인간중심주의 사상에 대해 신랄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가 낳은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이 자연을 파괴한다고 지적하였던 스나이더는 「최전선」(“Front Lines”)에서는 숲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고 숲의 파괴의 참상을 보다 충격적으로 생태계의 파괴를 고발한다⁷⁾. 스

7) 그 영향은 소위 시골과 야생에 다가오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최전선에 와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시를 썼을 때 그것을 인지하게 됐다. 내가 이 시를 쓰면서 「최전선」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이다. 나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나이더는 현대 과학기술문명을 암으로 규정한다. 자본이라는 바이러스가 퍼뜨린 암은 미국을 병들게 하고 파멸시킨다. 개발업자들의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땅은 투기, 잠재적 이윤 창출의 대상이지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 대 자연이라는 인식이 없다. 그들은 땅을 착취하고 강탈하며 나무들을 베어내어 숲을 파괴해버린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개발업자들은 숲에 살고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집을 빼앗고 생태계 파괴에 앞장선다. 스나이더는 그 질병에 대한 은유를 심장병으로 확장한다(Oelschlaeger 270).

암의 가장자리가
언덕을 향해 부풀어 오른다—우리는 느낀다
더러운 바람을—
암은 뒤로 가라앉는다.
.....
열흘간 비가 내려서 별목 트럭이 멈춰 서있다.
나무들은 숨을 쉰다.
일요일에 부동산 회사의
4륜 구동 썰차가 땅 보는 사람들, 구경꾼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은 말한다.
땅에게
다리를 벌려
.....

미국의 병들고, 지방 낀 혈관 속에
심장에서 썩어버린 모든 맥박이
암의 가장자리를 위로 더 가까이 밀어 올린다.
.....

뒤에는 북극으로 뻗어있는 숲이 있다.
아직도 파이어유트 인디언 부족에 속한 사막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어야 한다

고 보았다(RW 118).

우리의 경계선을.

The edge of the cancer
Swells against the hill—we feel
a foul breeze—
And it sinks back down.
.....

The wet days and the log trucks stop,
The trees breathe.
Sunday the 4-wheel jeep of the
Realty company brings in
Landseekers, lookers, they say
To the land,
Spread your legs.

.....
Every pulse of rot at the heart
In the sick fat veins of Amerika
Pushes the edge up closer—
.....

Behind is a forest that goes to the Arctic
And a desert that still belongs to the Piute
And here we must draw
Our line. (TI 18)

숲은 현대 자본주의에 병든 미국에 위협당하는 희생자로 묘사된다. 비가 와서 벌목이 멈추고 “나무들이 숨을 쉰다”는 묘사는 말 그대로 나무가 숨을 쉰다는 뜻이기도 하고, 벌목이 잠깐 멈추었기 때문에 나무들이 한숨 돌리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묘사한다. 미국을 “Amerika”로 표기한 것은 1960년대 미국을 파시즘에 비유했던 별명을 쓰면서 스나이더는 자본주의에 병든 미국을 고발한다. 그는 지방 긴 혈관을 가진 비대한 남자를 미국 경제에 비유한다(Murphy 108). 이 비대한 남자는 나무를, 숲을 유린한다. 자연을 오로지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는 개발의 논리에 스나이더의 분노가 표출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스나이더는 더 이상의 숲의 훼손과 자연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장한다. 스나이더는 도시 개발로 인한 숲의 파괴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시골과 야생에 까지도 침범하고 있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숲을 지켜내고자 하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인다.

「최전선」에서는 현대 과학기술문명을 암으로 규정했지만, 스나이더는 한 발 더 나아가, 「액체금속고속증식로」(“LMFBR”)⁸⁾에서 과학기술문명을 “죽음 그 자체”로 여긴다. 인간의 이기를 위해서 개발한 현대의 과학기술문명이 야기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그는 과학기술문명이 인류에게 구원의 손길이 아닌 죽음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죽음 그 자체가,
(액체금속고속증식로)
방긋 웃으면서 손짓하며 서 있다.
이빨이 빛나는 플루토늄,
윙윙거리는 눈썹
노천 탄광을 채굴하는 낮을.

칼리는 죽어서 뺏겨진 수탉 위에서 춤을 춘다.

알루미늄 맥주 깡통, 플라스틱 손가락들,
베니어 합판, PVC 파이프, 비닐 시트 커버들은,
잘 타지도 않고, 전혀 썩지도 않은 채
우리들 주변에 가득 차 있다.

칼리-유가의
예복과 복장들

8) “LMFBR”은 Liquid Metal Fast Breeder Reactor의 약자임. “LMFBR”은 액체금속 냉각형 고속증식로라는 핵융합을 발생시키는 원자로의 일종인데, 이 원자로는 감속재가 없고, 냉각재로 액체 금속을 쓰는 것으로서 소모한 연료보다 더 많은 연료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효율성 때문에 선호된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욱 많은 피해가 따르는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정석권 297).

종말의 날들

Death himself,
(Liquid Metal Fast Breeder Reactor)
stands grinning, beckoning.
Plutonium tooth-glow.
Eyebrows buzzing.
Strip-mining scythe.

Kali dances on the dead stiff cock.

Aluminum beer cans, plastic spoons,
plywood veneer, PVC pipe, vinyl seat covers,
don't exactly burn, don't quite rot,
flood over us.

robes and garbs
of the Kali-yuga

end of days. (TI 67)

「액체금속고속증식로」를 통해서 스나이더는 현대 기술 산업 문명의 산물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연구되고 개발되었지만, 오히려 파괴와 죽음을 가져다줄 뿐이라고 경고한다. 편리와 이익을 위해 만들었던 현대의 발명품인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은 땅속에서 분해되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의 생명과 삶에 가공할만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결국엔 지나친 산업화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인간의 삶을 좀먹고 있다고 경고한다. 스나이더는 힌두교의 칼리⁹⁾ 여신의 인유를 통해서 액체금속고속증식로가 우리에게 풍요로운 에너지와 삶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결국엔 인류의 파멸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값싼 에너지를 얻기 위한 무차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9) 칼리(Kali): 인도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여신이며, 파괴자이다. 검은색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며 그녀는 대지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둡고 외설적인 의식과 연관이 있다. 서구의 관점에서 칼리는 악마적인 무의식의 두려운 측면을 나타낸다.

미국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들의 문화마저 파괴해 버린다. 기업과 정부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입각하여 미국 원주민의 문명과 그들의 정신적인 뿌리마저 말살시키려고 한다. 「블랙 메사 1번 광산」(“Black Mesa Mine # 1”)에서는 푸에블로족이 살았던 고대의 산이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을 보여준다.

황사 바람에 구름이 소용돌이친다
오십 피트 가로질러 저 북동쪽에서
불도저가 도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었다.
하얀 구름 연기가 올라온다.
노간주나무와 피논 소나무가 산재해있는 숲들은
사람들을 위해 땀감이 되고
모든 것들을 위해 장작더미가 된다
푸에블로족의 교차 도로에서
고대의 어머니 산이
물의 웅덩이가
석탄의 웅덩이가
모래의 웅덩이가
묻혔거나 황량한 채로 눕혀져 있다.

고독한 트럭들은 느리게 간다,
연기를 내면서 모래는
타이어 주변에서
그리고 닳아진 돌 평원에서 몸부림친다.

Wind dust yellow cloud swirls
northeast across the fifty-foot
graded bulldozed road,
white cloud puffs,
juniper and pinyon scattered groves
—firewood for the People
heaps of wood for all
at cross-streets in the pueblos,
ancient mother mountain
pools of water

pools of coal
pools of sand
buried or laid bare

Solitary trucks go slow on grades
smoking sand
writhes around the tires
and on a torn up stony plain. (TI 42)

푸에블로족의 땅이 고대 어머니의 산이 개발의 상징인 불도저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되어 황량하게 널브러져 있다. 불도저에 의해 쓰러진 나무들은 뿔감으로 전락되어 버린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고대의 숲은 한 순간에 장작더미가 되어버렸다. 자본주의 논리와 개발이라는 괴물은 가리지 않고 숲을 다 파괴해버려서, 인디언 부족들에게 신성한 땅조차도 남겨 놓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논리에 입각한 인간의 끊임없는 이기심과 탐욕은 인간들 사이의 계급과 차별을 낳으며, 인종간의 차별과 타 민족의 문명을 제거하거나 말살시키는 야만적인 행위로 귀결된다.

지금 이 순간 호피(Hopi)족과 나바호(Navajo)족의 땅인 블랙 메사¹⁰⁾에서 암과 같은 노천 채굴의 형태로 어머니 대자연의 가슴을 갉아 먹고 있다. 이것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고대의 복잡한 신화의 거미줄을 통해 블랙 메사는 신성한 지역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어머니 대자연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아메리카”라는 유럽식 이름을 버리고, “거북섬”이라는 대륙의 새롭고 오래된 이름을 수용하는 것이다 (TI 104-05). 도시 사람들에게 풍족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거북섬에 살

10) 1967년 피바디(Peabody)석탄회사가 나바호족과 호피족 보호구역인 북아리조나(Arizona)와 유타(Utah)주에 걸쳐 있는 블랙 메사에 노천 탄광을 채굴하러 왔다. 그 부족에게서 임대한 그 땅은 고대 부족의 매장지였다. 법에 따라 정부는 블랙 메사 고고학 프로젝트(Black Mesa archeological project)로 알려진 17년간의 발굴을 위해 고고학자들을 고용했다. 발굴에서 나온 뼈와 공예품은 미국 원주민과 고고학자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을 일으켰고, 석탄회사와 미국 정부는 새로운 채굴을 계획 중이다. 미국 원주민 그룹과 시에라 클럽(the Sierra Club)은 고대 인디언 부족의 매장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 피바디 석탄회사는 부족들로부터 그 땅을 평생 동안 임대해서 채굴하려고 한다<<http://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4/dec/10/black-mesa-mines-native-americans-demand-ancestral-bones-navajo>>.

던 미국 원주민들의 땅을 파괴해버리고 그들을 내쫓아 버렸다. 미국 원주민의 신화와 신성한 지역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아 없애버린다. 새로운 도시 문명은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문명을 말살시켜버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마저 앗아간다.

「마력」(“Glamor”)은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서구문명이 미국 원주민에게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정신을 파괴했는가를 보여준다. 자본주의 문명이라는 질병은 인간의 탐욕을 부추긴다.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아온 순수한 미국 원주민조차도 문명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미친 듯이 탐욕과 소유욕을 추구한다. 문명은 전염병이나 독약처럼 퍼져서 미국 원주민의 정신을 파괴하게 만들고 동료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대량학살인 것이다.

미친 듯이 탐욕스럽게 그는 살아간다. 자기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며
문명은 퍼져 나간다. “소유권”이라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관대한 사람들 가운데서
질병처럼, 독약을 먹은 것처럼,

매력적인 병이고
눈부신 독약이다.
“대량학살이다”

Crazy and greedy, he lives on. to the damage
of his people.
Civilization spreads: among people who are generous,
who know nothing of “ownership,”
like a disease. Like taking poison.

A glamorous disease
a dazzling poison
“overkill”. (AH 94)

「마력」의 주인공은 동족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탐욕에 눈멀어서 닥치

는 대로 소유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 탐욕스런 그가 퍼뜨린 문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순수했던 동족들은 소유권에 눈뜨게 되고 이는 동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탐욕의 출발점이 바로 소유권인 것이다. 그가 가져온 소유권이라는 독약은 매력적인 동시에, 멋진 독약이다. 이것이 바로 “대량학살”인 것이다. 물질문명은 단일 식물처럼 대지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RW 117). 스나이더는 자본주의가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순수한 미국 원주민들의 정신마저 파괴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자본주의 문명에 희생되는 미국 원주민들의 영혼의 파괴는 그들을 정신적으로 학살시키는 것이다.

개발과 발전의 논리에 의해 자행되는 생태계의 파괴는 오늘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 킬(road kill)에서도 볼 수 있다. 「길가에 죽어 있는 것들」(“The Dead by the Side of the Road”)에서 스나이더는 개발의 상징인 고속도로에서 로드 킬을 당한 동물들을 인간들이 오락과 즐거움을 위한 목적으로 다시금 그 죽은 동물들을 잔인하고도 무자비하게 다루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로드 킬을 당한 머리가 박살 난 스컹크를 묻어 주기는커녕 그 사체를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가솔린에 세척하고 무두질해 텐트 안에 걸어 놓는다. 또한 마술도구를 위한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 로드 킬을 당한 죽은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소금물과 황산에 절이는 묘사는 너무도 끔찍하다.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는 극에 달한 잔인한 인간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스나이더는 인간들의 불경의식과 잔인성과 폭력성을 비난한다.

할로윈 데이에 49번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인 새끼 사슴은 스튜요리가 되어
입에 옥수수 가루를 바치고,
가죽은 다 벗겨졌다.

.....
암사슴은 총에 맞은 게 분명하다
어깨를 맞아 옆구리로 빠져나가

옆으로 길게 관통했다.
뱃속엔 피가 흥건하다.

.....
그들의 뒤편에 기도하라.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라.
우리의 고대의 자매들의 길 위에
가로질러 도로가 생기고 그들을 죽였다.
밤에 반짝이는 눈들.

길가에 죽어 있는 것들.

Fawn stew on Hallowe'en
hit by a truck on highway forty-nine
offer cornmeal by the mouth;
skin it out.

.....
The Doe was apparently shot
lengthwise and through the side-
shoulder and out the flank
belly full of blood

.....
Pray to their spirits. Ask them to bless us:
our ancient sisters' trails
the roads were laid across and kill them;
night shining eyes

The dead by the side of road. (TI 7-8)

“로드 킬”이라고 불리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동물들의 사고를 묘사한 위의 시구에서는 문명과 자연의 야성의 충돌이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동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고속도로를 건설한 인간이다. 결국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간들은 동물의 영역까지 침입해서 동물들의 목숨을 빼앗는다. 인간의 문명이 야성의 자연을 침해하는 것이다.

길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거나 사냥 시즌에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참혹한 것은 동물들이 인간들의 오락을 위해서 화학 약품으로 처리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잔인하고 적나라한 묘사는 인간의 영혼의 파괴와 생명에 대한 불경의식을 보여준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의 고대의 자매들이 다니던 길 위에 도로가 생겨나고 그 도로 위에서 죽은 스컹크, 아기 사슴, 너구리, 암사슴 등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요청된다. 시의 화자는 로드 킬 당한 동물들의 영혼에게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그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그들의 죽은 영혼을 달래고자 한다. 미국 원주민들은 사냥한 동물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면 죽은 동물의 영혼이 더 많은 사냥감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했다. “입에 옥수수 가루를 바치는” 행위는 북미 인디언들이 죽은 동물들에게 바치는 속죄 의식이다. 시의 화자도 미국 원주민처럼 죽은 동물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이는 미국 원주민의 사냥 관습에 맞춰 죽은 동물에 대한 영혼을 위로하고 생명체에 대한 존중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스나이더는 한동안 잘못된 것이 서구 자본주의라고 생각했지만,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 전통 안에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꼬집으면서 서구 문명 전체에 내재된 폭력성을 고발한다(*RW* 94). 스나이더는 서구문명에 내재된 문제점, 즉 파괴적인 경향과 인간의 잔혹성을 위의 시에서 고발하고 있다. 이익 추구를 위해 자연에 대한 착취를 서슴지 않으며, 개발과 성장이라는 암세포를 지닌 생물권 문화에 근거를 둔 서구 문명은 “자기 자신의 근거를 소외시키는 문명이며, 야생으로부터 소외된 문명은 매우 파괴적인 행동으로 운명지워져 있다”(TI 106)는 것이 스나이더의 인식이다.

스나이더는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로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지구 환경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어머니인 지구: 그녀의 고래들」(“Mother Earth: Her Whales”)은 스나이더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에 참석한지 한 달 뒤에 쓴 작품이다. 그는 지구환경회의의 목적이 지구를 구하는 것인데, 각 나라의 정부를 대

변하는 정부 관료들이 지구를 경제적인 자원으로만 여기고 자연을 착취하고 이용하려는 목적만 갖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스톡홀름 회의에 참석한 모두는 나눠주려 하기 보다는 빼앗으려고 하고, 지구를 구하기보다는 지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골몰한다”는 성난 서문으로 이 시는 시작한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생명체들을 묘사하면서 시작하는 3연에서는 서로 관통하는 존재들에 대한 경건한 존중감과 대조되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이 제시된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브라질은 수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서식처가 아니라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장소이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 관료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사용을 주장한다. 정부 대표단인 ‘양복 입은 로봇’이 정글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대변할 수 있느냐고 스나이더는 반문한다. ‘브라질’이라는 이름은 생물지역적이고 생태적인 존재가 아닌 아마존 수계를 임의적인 인간의 경계로 나눈 것이라고 스나이더는 비난한다.

4연은 아름다운 고래의 행동을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묘사한다. 반면 5연에서는 한때 생명을 중요시 여기던 위대한 불교 국가였던 일본의 포경산업과 이에 따른 해양 오염을 비난하면서 4연과 5연을 대조시킨다. 스나이더는 또한 옛날 중국의 사라진 습지와 엘라 푸어의 사슴을 언급하면서 종의 멸종과 농경에 의한 생물지역의 파괴가 단순히 현대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고, 또한 이러한 환경 파괴는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자행되었음을 고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스나이더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변화된 의식을, 곧 자연의 생명체들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여길 것을 요구한다.

단결하라. 사람들이여.
서있는 나무 사람들이여!
나는 새 사람들이여!
헤엄치는 바다 사람들이여!
네발 달린 사람들, 두발 달린 사람들이여!

머리가 무거운 권력에 굶주린 정치적인 과학자
정부 두-세계 자본주의자-제국주의자
제3세계 공산주의자 서류를 교묘히 섞은 남자
농부가 아닌 상류층 관료들이
어떻게 잎들의 녹색을 대변할 수 있나? 땅을 대변 할 수 있나?

Solidarity. The People.
Standing Tree People!
Flying Bird People!
Swimming Sea People!
Four-legged, two-legged people!

How can the head-heavy power-hungry politic scientist
Government two-world Capitalist-Imperialist
Third-world Communist paper-shuffling male
non-farmer jet-set bureaucrats
Speak for the green of the leaf? Speak for the soil? (TI 48)

스나이더는 현대 문명을 이끌어 온 인간중심주의를 공격하면서, 북미 인디언들이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모든 존재들의 단결을 외친다. 나아가 정치적인 과학자들인 로봇들에게 항거하며 봉기하라고 외친다. “서 있는 나무 사람들”, “나르는 새 사람들” “헤엄치는 바다 사람들”, “네발 달린 사람들, 두발 달린 사람들”에게 단결하라고 한다. 스나이더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대변하는 정부 대표단과 권력에 눈먼 과학자들이 “잎의 녹색을 대변할 수” 없다고 비난한다. 정부 대표단과 정치적인 과학자에게는 자연은 그저 이용하고 개발할 자원으로만 여겨지지 우리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서 보호하고 보존할 대상이 아니다.

로봇들은 우리의 어머니인 지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논쟁한다.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
죽어가는 암사슴 옆에서
날개를 펴덕거리며
트림을 하며, 목을 꼰끼이고 있는 독수리처럼.
“저기 들판에는 살해된 기사가 누워있다—

우리는 그에게 날아가서 그의 눈을 파먹을 것이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자“

The robots argue how to parcel out Mother Earth
To last a little longer
like vultures flapping
Belching, gurgling,
near a dying Doe.
“In yonder field a slain knight lies—
We'll fly to him and eat his eyes
with a down
derry derry derry down down.” (TI 48-9)

지구를 서로 나누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스나이더는 죽어가는 암사슴 옆에서 쪼아 먹으려 기다리는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생명체들에 대한 존경이나 존중감이라고는 전혀 없다. 스나이더는 인간을 자연보다 우위에 두며, 인간을 모든 가치의 중심으로 여기는 정부 대변인들의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와 자본주의적 논리를 비난한다. 이 시에 나오는 정부 대변인들, 관료들, 즉 “로봇들”은 자연을 자원이나 사용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의 논리로 본다.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국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을 뿐이지, 자연을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나이더는 로봇들이라고 비하한다. 이들에 대한 비판은 진정으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하는 네트워크로 보는 스나이더의 심층생태학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베이트(Jonathan Bate)는 다음 시구를 인용하면서, 스나이더의 시가 과연 생태시라고 불릴만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본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고래를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들을 얼버무리고 있다?
한때는 크나큰 불교 국가였던 나라가
임질과 같은

메틸 수은을 흘리고 있다
바다에.

And Japan quibbles for words on
what kinds of whales they can kill?
A once-great Buddhist nation
dribbles methyl mercury
like gonorrhea (*TI* 48)

베이트는 이 시가 스나이더의 의견을 표출하는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쓰였지, 지구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나온 경험을 언어로 전환하려는 시도로는 쓰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베이트는 압축과 진술의 배열이 시의 형식에 수사적인 요소를 더한다 하더라도, 그 시어의 본래적인 의미(tenor)와 비유적 전달 수단(vehicle)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메시지 전달은 신문이나 티비 패널들의 토론과 같은 매체에서도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생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199-200). 그러나 스나이더는 독자들에게 생태적 환경에 대한 강렬한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유의 방식을 포함한 형식적 결함을 지적하는 베이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메시지 속에는 생태시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이다. 생태시에서 때로는 형식을 뛰어넘는 강렬한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나이더가 숲의 파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벌목을 반대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마주한 자연과 벌목 현장을 직접 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그도 역시 한때는 벌목공으로 일했기 때문에 벌목이 생태계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일련의 「벌목」(“Logging”) 시편에서 인간들은 숲의 파괴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파괴한다고 비난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 자신이 경외심을 가지고 자연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감사와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언덕이 불도저에 밀려 길이 만들어지고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숲이 목재 벌채 트럭에 실려

마법에 걸린 듯 뚱뚱 떠서 사라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는 보호의식마저 느꼈다. 나는 워싱턴 주의 시골 가정에서 자랐다. 내 조부는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홈스테드법에 따른 농장 입주자였다. 그 지역 전체의 경제적 기반은 벌목이었다. (PS 126-27)

스나이더는 이처럼 어린 시절 경제 공황기에 부모님과 주변 이웃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었던 벌목을 통해 자연 파괴의 현장을 목격하며 자란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에 대한 경외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시켜 온 스나이더는 벌목되는 나무들을 보며 보호 의식을 느낀다. 벌목은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나이더는 벌목을 통해 숲의 파괴뿐만 아니라 문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 사상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이기심과 편리만 추구하다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후손들이 살 터전마저 없애고 있다.

미 서부의 고대 숲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 샌프란시스코, 유레카, 코발리스, 포틀랜드, 시애틀, 롱비우에 있는 집들은 모두 오래된 나무로 지어졌다. 주택용 표준 목재와 건물 외벽에 대는 널빤지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벌채한 목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의 낡은 아파트의 칠을 벗겨 보면, 그것이 태평양 연안에서 나온 1등급의 삼나무 널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고대 수목이 보호해 주는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증손자들은 강바닥에서 채취한 돌과 모래 등의 혼합재로 지은 집에서 살 가능성이 더 많다. 그때가 되면 과거의 숲은 정말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PW 134-35)

이처럼 스나이더는 무절제한 남벌로 인해 숲이 사라질 것을 염려한다. 숲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이 더욱 더 척박해지고 숨 쉬는 공기의 질도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숲이 사라짐으로 인해 인간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숲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아예 살아갈 곳이 없어져 버린다. 스나이더는 1954년 워밍 스프링스 목재회사에서 일하던 경험에 근거하여 쓴(PW 221) 「벌목 8」("Logging 8")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숲의 파괴로 인해 숲에 사는 동물들과 나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

위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D8 불도저가 전나무 뽑아 버리니,
새끼 소나무에 생채기를 낸다
얼룩다람쥐가 달아나고
흑개미 한 마리가 뒤집어진 땅으로부터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알을 옮긴다.
말벌들은 무너진 죽은 나무
자신들의 집 위로 떼 지어 빙빙 돌고 있다.
아직 서 있는 꺾질 벗겨진 나무로부터
송진이 스며나오고,
깃이겨진 덩불에서 야릇한 냄새가 풍긴다,
로지폴 소나무는 연약하다.
캐나다어치새들 퍼덕거리며 지켜본다.

The D8 tears through piss-fir,
Scrapes the seed-pine
chipmunks flee,
A black ant carries an egg
Aimlessly from the battered ground.
Yellowjackets swarm and circle
Above the crushed dead log, their home.
Pitch oozes from barked
trees still standing,
Mashed bushes make strange smells.
Lodgepole pines are brittle.
Camprobbers flutter to watch. (M&T 10)

위의 시구에서 스나이더는 조용한 겨울 새벽에 갑작스런 게릴라 공격처럼 숲에서 벌목이 자행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서리”, “돌”, “나무”, “말”, “흑개미”, “말벌” 등 자연에 있는 생물들은 물론 “바위”같은 무생물까지도 개발과 기술 문명의 상징인 “불도저”에 의해 무참히 쓰러지고, 생명체들의 집이 파괴된다. 소나무 가지 위에 쌓여 있던 “서리”는 엔진에 흔들려 떨어지고, “흑개미” 한마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 채 알을 옮긴다. “말벌들”

은 갑작스런 불도저의 공격에 집을 잃고 집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어찌지 못한다. 불도저에 의해 쓰러지지 않은 채 아직도 서있는 나무에서 흘러 나오는 송진은 마치 나무가 피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묘사는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숲이 파괴되는 장면을 숲에 사는 생명체들의 입장에서 의인화해서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시에 대해 폴(Sherman Paul)은 “짧으면서도 찌르는 듯한 행들은 새벽부터 어스름한 저녁까지 D8 불도저에 의해 숲과 그 속의 개미와 벌이 침략 당한다. 동사도 기계적인 거대한 폭력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전쟁으로부터 작은 동물들과 곤충들은 달아날 수 밖에 없다”(230)고 말한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았던 스나이더는 이에 대한 가슴 아픈 심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런 커다란 나무가 제재소로 실려 나가는 것을 보고,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나무는 양딱총나무였는데, 위엄 넘치는 실존의 존재였으며 수백년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나무의 껍질에서 햇볕에 그을린 형체 없는 아린(芽鱗)을 몇 개 구해서 벌목 캠프장의 내 잠자리 옆 상자위에 만들어 놓은 작은 단에 올려놓았다. 그것과 다른 공물들(하늘하늘 나무끼는 깃털 하나, 부서진 새알 조금, 흑요석 약간, 초월 지혜를 가진 문수보살의 엽서 그림)은 숲에 바치는 ‘나의’ 공물이 아니라, 숲이 우리 모두에게 바치는 공물이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다만 숲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말해 주는 어떤 작은 표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PW 125-26)

1930년대 중반에서 50년대 후반까지 임업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벌목이 아니라 선택적인 벌목은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사람들은 적정량의 벌목을 했다. 스나이더는 그 당시가 미국에서 삼림이 잘 관리되었던 기간이라고 한다(PW 133). 스나이더는 “숲에서 쓰러진 나무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데는 그 나무가 살아 있었던 시간과 거의 같은 세월이 걸린다. 만일 인간의 사회가 그런 걸음으로 사는 걸 배울 수만 있다면 물자 부족도 자원 소멸도 없을 것이다. 맑은 물이 흐를 것이고, 연어는 언제라도 알을 낳으려 상류로 돌아올 것이다”(PW 135)라고 말한다. 스나이더는 인간 사회가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발전해 나갈 때에 자원

부족이나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잠식된 인간은 자연과 소원해지며,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야성을 두려워하게 된다. 「야성의 부름」(“The Call of the Wild”)에서는 “자연을 위협하는 인간”(RW 17)이 묘사된다. 야성의 부름이 두려운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야성의 상징인 코요테를 두려워한다. 야성에 대한 두려움과 자연 파괴적인 태도는 땅과의 전쟁을 치르게 한다.

팔십 평생을 캘리포니아에서 채굴과 벌목을 하며 토박이로 살아온 노인이 잠자리에 들 때면 코요테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노인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쉬고 싶으나 코요테의 울음소리가 그를 잠 못 들게 한다. 코요테의 울음소리에 깊은 숙면을 방해받은 성난 노인은 내일 코요테를 잡기 위해 정부 물이꾼을 불러서 덫을 놓으려 한다. 하지만 시인의 아들들은 코요테의 노래를 듣고 막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그들은 코요테의 노래 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코요테의 울음소리를 대하는 태도는 노인과 스나이더의 아이들에게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자연 세계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노인은 평생 토박이로 살아 왔지만, 그는 결코 진정한 거주자가 되지 못했다. 그에게 코요테의 노래는 울부짖음일 뿐이다. 스나이더의 아들들은 코요테의 울음소리를 노래로 듣는다.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들은 야성의 부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과 동화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노인은 코요테를 죽이게 함으로써 편안한 숙면의 밤을 보내겠지만, 그는 더욱 더 자연과 소원해진다. 하지만 노인은 결코 상실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지만, 스나이더의 아이들은 “이제 막 좋아하기 시작한/ 노래를 잃게 될 것이다.”(My sons will lose this/ Music they have just started/ To love.)(TI 22) 머피가 지적하듯이, 코요테로 상징되는 야성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인간이 자연환경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관심, 자연과의 상호의존에 관한 문제이다 (117). 자연으로 부터 소외된 인간의 문명은 인간들로 하여금 야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한 자연 파괴적인 태도는 땅과의 전쟁을 야

기시킨다. 스나이더는 땅과의 전쟁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미국 정부의
베트남전까지 확장시킨다. 이는 다음 시구에 잘 나타난다.

정부는 드디어
전쟁을 전면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패배는
비 미국적이므로,
그들은 공중전을 택하였다.

.....
그들이 결코 땅에 내려오지 않았으니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땅이
친-공산주의라는 것을. 그리고 더럽다는 것을.
그리고 곤충들이 베트콩과 한편이라는 것을.

.....
땅을 적대하는 이 전쟁.
이것이 끝날 때는
그 어느 곳에도

코요테가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The Government finally decided
To wage the war all-out. Defeat
is Un-American.
And they took to the air,

.....
And they never came down,
for they found,
the ground
is pro-Communist. And dirty.
And the insects side with the Viet Cong.

.....
A war against earth.
When it's done there'll be

no place

Coyote could hide. (TI 22-3)

베트남의 정글에 고엽제를 뿌려서 숲을 완전히 절멸시킨 것과 농민들의 마을과 생활방식을 뿌리째 파괴해 버린 베트남전을 비난한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살충제, 폭탄 투하로 땅을 불모로 만들고, 자연을 파괴하는 참상을 고발한다. “땅과의 전쟁”은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코요테가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머피는 스나이더가 코요테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여기서 동물 한 마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의식 있는 존재들을 연결하는 무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코요테를 상징적으로 쓰고 있다고 말한다(117).

코요테가 영원히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하고 싶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I would like to say
Coyote is forever
Inside you.

But it's not true. (TI 23)

인간은 무의적으로 야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두려움은 자연 파괴로 이어진다. 켄(Robert Kern)의 지적처럼, “자연은 절멸의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인간에 의해 희생되고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보여진다”(120). 자연과 인간이 상호공존을 하기 위해서 스나이더는 인간들 내면에 있는 야성을 끄집어내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자연과 친연성이 있는 스나이더의 아이들은 야성의 부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성의 부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의 태도야말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공존의 첫걸음이다.

“코요테”는 미국 원주민 문화에서 신화적으로 구현된 존재이다. 코요테는 트릭스터(Trickster)¹¹⁾이며, 캘리포니아 지역 미국 원주민들의 신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랑하는 신화적 인물이다. 스나이더는 “현대사에서 미국 원주민의 민담을 사용하는 것 가운데 코요테를 제시하는 것과, 계속되는 코요테의 출몰은 지금까지 가장 놀라운 일이다”(OW 67)라고 한다. 스나이더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코요테의 생존에 기쁨을 나타내면서 “야성이 파괴되고 늑대가 멸종되어도 코요테는 계속 번성한다”(OW 68)고 말한다.

독이 든 미끼를 먹지 않은 동물 코요테는 늑대가 거의 멸종된 서부 전역에서 살아남았다. 코요테, 혹은 동물 코요테와 구분하기 위해 ‘코요테 인간’이라고 불리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늑은 현자 코요테’는 신화시대에, 그러니까 꿈의 시대에 살았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캐스케이드(Cascade) 산맥 반대편에서는 그 동물을 ‘갈가마귀’라고 부른다. 오대호 지역에서는 간혹 ‘산토끼’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를 ‘코요테 인간’이라고 부른다(PS 97).

그러면 “당신 안에 영원히”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코요테와의 관계이며, 땅, 동물,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과의 관계이다. 스나이더는 코요테는 창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모순적인 우리들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는 바로 트릭스터 같은 인간 본성이라고 한다(OW 75).

코요테가 나와 나의 동료들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장소를 말해주고, 또 어떤 수호자, 보호 정령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트릭스터에게서 느끼는 매혹이라는 또 다른 감정은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것에서 나와야 한다. 나에게 트릭스터 이야기의 가장 흥미진진한 심리적 측면은 그들에게 선과 악이 혼재돼 있다는 점이다. 코요테는 분명 인간에게 자비심과 연민과 유용함을 보여주는 한편, 또한 어떤 기품도 가지고 있다. 그런가

11) 트릭스터는 원주민족의 민화나 신화에 존재하는 인물, 또는 동물로 흔히 문화영웅과 겹친다. 문화영웅은 새로운 기술, 제도, 관습을 창조하거나 전파하여 인간 생활에 발전을 가져다 준 존재이다. 대표적으로 서양에서는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다가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가 있다(PS 96).

하면 어떤 경우에는 철저한 바보이다. 그러나 늙은 현자 ‘코요테 인간’, 그는 그저 언제나 길을 가고 있으며, 행할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을 행하고 있다. (PS 159)

이처럼 스나이더는 서구 자본주의 문명의 폭력성과 자연에 대한 파괴성을 고발한다. 스나이더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으며,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착취, 개발해도 된다는 유대/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 사상을 비판하며 타파하고자 한다. 발전과 인간의 편리만 추구하는 현대과학 기술 문명으로 인해 우리 인간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자연으로부터 소외된다.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야성을 상실하며, 야성의 부름에 두려움을 느낀다. 인간과 자연과의 소외는 인간 자신을 소외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한다. 스나이더는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시 문명으로 인해 상실한 야성을 회복해서 생태 지향적이고, 자연을 존중하며, 어머니 대자연에 겸허와 감사를 표하는 인간의 변형된 사고와 자세를 요구한다.

Ⅲ. 생태적 선불교와 미국 원주민의 신화

심층생태주의자들은 현대의 생태적 위기의 원인으로 인간중심주의, 이원론, 합리주의 등을 거론한다. 주로 유대/기독교 전통에 의해 형성된 서구의 전통적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기보다 자연이 인간 보다 못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형성해왔다. 화이트(Lynn White, Jr.)는 현대의 생태적 위기가 유대/기독교 전통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9). 스나이더 또한 “동물은 영혼이 없고 구원될 수 없으며, 여호아가 지켜 보는 가운데 우리의 자유 의지와 구원의 드라마를 실천하는 동안 자연은 단순히 우리가 착취하고 개발할 땅으로 보는”(EHH 122) 유대/기독교의 관점을 언급하면서 화이트의 견해에 동의한다. 화이트는 “우리 시대의 근본적 혁명가들인 비트닉(beatnik)¹²⁾들은 선불교에 대한 친화감을 보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본능을 취한다”(White 12)고 말한다. 스나이더와 화이트 둘 다 병든 현대문명에 대한 치유책을 선불교에서 찾는다. 서양의 인간중심적인 사고와는 다르게 불교 사상은 모든 만물이 평등하고 공존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는 생물권이라는 크나큰 생명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EHH 91-92).

스나이더는 불교의 ‘인드라 망’(Indra’s net) 이미지를 빌려와 모든 존재의 상호관련성(interconnectedness)과 상호침투(interpenetration)를 설명한다. ‘인드라 망’에서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그물이며, 그물의 각 매듭에 밝게 빛을 내는 보석들이 박혀 있다. 각각의 보석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비추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며 세상의 진리를 서로 상호침투하면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드라 망의 이미지로 스나이더는 생태계의 망(web) 관계를 묘사하면서, 각 매듭에 박혀 있는 각각의 보석은 하나의 존재라고 본다. 즉 우리 인간과 자연 만물이 그물 망 속에 박혀 있다고 본다. 우리 자신은 생

12) 비트제너레이션 세대, 전통 사회의 규범을 거부하고 예술적인 자기표현을 강조했던 사회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1950-60년대 초 젊은이들을 일컫음.

태계 망에 박혀 있는 다른 보석에 반사되며 각각의 보석은 서로를 끊임없이 비추어주는 시스템 속에 있다. 따라서 스나이더는 인간과 자연이 상호 침투하면서 상호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존재론적 시스템 안에 있다고 본다. 자연과 인간은 존재와 형태, 그리고 위치를 계속해서 바꾸는 환생의 그물망을 통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스나이더는 주장한다(EHH 129). 순환적인 시간 개념을 가진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죽은 후에 윤회(Samsara)를 통해서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스나이더는 자연에 대해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깊이 공감하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공존, 즉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의식(ritual)의 형태를 시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시는 야생의 자연과 인간의 유대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Oelschlaeger 268). 스나이더의 독창적인 시학은 북미 인디언 신화와 그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선불교와 동양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중심적인 이기적 자아를 버리고 야생으로 돌아가서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스나이더를 비롯한 심층생태학자들이 작금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동양사상과 불교에 경도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드발(Bill Devall)과 세션즈는 서구의 지배적인 사유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불교와 도교 사상을 거론하면서, “동양의 전통이 만물의 유기적 통일성과 생태적 평등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인간 자신들만이 중요하다는 망상과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여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한다”(100)고 강조한다. 스튜딩도 또한 “선(Zen)은 여러 면에서 생태학적이다. 생태학의 중심 개념은 내적인 관계이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 관련되어 있고, 거대한 ‘생명의 망’(web of life)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존한다”(56)고 선의 생태학적 측면을 언급한다. 이처럼 생태학자들은 서구의 지배적인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배격하고, 동양사상과 불교가 자연에 대한 친연성을 갖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존중감이 내재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스나이더가 기독교를 불신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다. 스나

이더는 어린 시절 “교회 예배에서 동물들은 영혼이 없다는 말을 듣고선 그는 정신적인 자양분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함을 알았다”(Steuding 50)고 말한다. 그의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은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 스나이더는 1950년대에 반문화(counterculture)인 비트 운동(Beat Movement)을 이끌면서 이국적인 종교에 경도되면서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 특히 선승이면서 불교학자인 스즈키(D.T. Suzuki)의 영향을 받은 스나이더는 인디애나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인류학을 그만두고, 버클리대학 대학원으로 옮겨 아시아 연구를 하면서 불교에 심취하게 된다. 선불교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스나이더는 중국, 일본, 인도 등 동양의 문화와 전통을 연구한다. 스나이더는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와 아더 웨일리(Arthur Waley)의 중국 한시 번역과 노자(Lao Tse)와 공자(Confucius)의 고전을 읽고, 힌두교 철학과 경전 등을 탐독한다. 중국어와 일어를 공부하면서 중국의 한산시(Cold Mountain Poem)와 일본의 하이쿠(Haiku)를 번역하기도 했다. 1956년에 미국 선불교 연구소(First Zen Institute of America)에서 장학금을 받고 선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일본 교토로 건너가서 스승(roshi) 오다 세소(Oda Sesso)에게서 선불교를 배운다. 약 10여 년 동안 오다 세소에게서 선불교를 공부한 스나이더는 동양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선불교를 생태학에 접목시킨다.

스나이더의 삶과 작품은 분명히 선불교의 철학적, 심리적 영향을 반영한다. 선(Zen)은 스나이더에게 영적, 미적 영향뿐만 아니라 그의 독창적인 시 세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선 수행은 직접적인 어떤 것에 이르는 훈련이며(EHH 34), 사물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모든 것이 인드라 망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네트워크이며 우리들 자신과 지구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있다(RW 35)고 언급하면서 선의 일체의식(oneness)을 설명한다.

스나이더가 강조하는 사물의 상호의존성은 불교의 연기의 법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으며,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는 부처의 가르침은 모든 사물이 절대적으로 홀로 생성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면서 존재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연기의 법칙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명중심주의, 더 나아가 불교적 생태중심주의 사고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최종석, “21세기” 386). 모든 생명체가 상호관련성(interconnectedness)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안에서 평등하게 존재한다는 연기법¹³⁾에 기초한 인간 사고의 혁신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compassion)의 실천 속에서 현재의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한편, 내스(Arne Naess)는 심층생태학의 ‘두 가지 절대 규범’(two ultimate norms)인 “자아실현”(self-realization)과 “생물중심주의적 평등”(biocentric equality)을 제시한다. 자아실현은 현세나 내세에 개인적 구원이나 쾌락적 만족을 추구하는 고립된 자아로 정의되는 서구적 자아 개념을 초월한다. 심층생태학적 자아개념은 인간과 비인간 세계인 자연을 포함한 유기적인 전체를 대자아(Self)로 본다. 대자아 속의 소자아(self)의 자아실현을 통한 인격 성숙을 역설한다. 생물중심주의적 평등 개념에 의하면, 생물권의 모든 존재들이 더 큰 대자아 내에서 개별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동등한 권리를 모두 갖고 있으며, 생물권의 모든 유기체와 존재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전체의 일부로서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Devall & Sessions 67). 내스의 “생물중심주의적 평등” 규범은 스나이더가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구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선불교의 생명존중 사상과 자연과 인간이 상호관련되어 있는 인드라 망으로 설명하는 생태계 평등사상과 일치한다.

스나이더는 돌이나 풀의 생명도 아인슈타인의 생명과 같이 귀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생명에는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RW 17) 불교의 생태중심적 평등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마라”(ahimsa)는 불교의 첫 번째 계율¹⁴⁾이 동물

13) “불교에서는 자아와 세계를 연기(緣起)로 인식한다. 자연 만물의 원리나 본성이 연기되었다는 것은 곧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결합하여 일어난다는 상호의존적 발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일체 현상이 상호의존성에 의해서 성립되었기에 어느 것 하나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것이 있을 수 없고, 연기된 것은 서로 서로 존재하려고 힘을 들이고 있으며 그리고 독자적으로 생성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독립된 실체로서 독자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존재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기본 교리인 연기론이다.”(최종석, “생태불교” 228)

14) 불교에서 말하는 5계율은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

에게도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불교의 자비심은 신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비폭력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계적인 기업 경제와 조직화된 현대 사회가 ‘아힘사’(ahimsa)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절멸할지도 모른다(PS 73)는 우려를 표하면서, 모든 존재는 존재 이유가 있기에 아힘사의 실천만이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스나이더는 역설한다.

스나이더는 만물에 대한 자비(compassion)의 실천을 「사냥 14」(“Hunting 14”)에서 다루는데, 이 시의 주제는 자비와 변형-윤회이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먹고 먹히는 생존의 관계에서는 고통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자비가 요구되는데, 자비는 고통의 필연성에서 나온다. 스나이더는 이 고통의 문제를 북미 원주민의 사냥에 대한 태도와 사냥 의식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불교적인 자비로 해결하려고 한다.

부처는 스스로를 호랑이에게 먹이로 내어주고
 눈먼 자들에게
 (수년에 걸쳐)
 쌓으면 산만큼 될 만한 눈들을 기증했다
 한번은
 산사자가 나를 한 밤중에
 4 마일이나 쫓아왔다. 총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무서웠다, 나는 잡아먹히고 싶지 않았다
 아마 우리는 변할 것이다.

Buddha fed himself to tigers
 & donated mountains of eyes
 (through the years)
 To the blind,
 a mountain-lion
 Once trailed me four miles
 At night and no gun
 It was awful, I didn't want to be ate
 maybe we'll change. (M&T 32)

語), 불음주(不飲酒) (살생, 도독질, 음욕, 중상, 술 취함 등의 금함)이다.

이상적인 인간이며, “본래의 마음”의 정수인 보살-부처(Bodhisattva -Buddha)¹⁵⁾는 자신을 호랑이의 먹이로 내어주고 눈먼 자들을 위해 자신의 눈을 기꺼이 내주는 자비를 베푼다. 하지만 화자는 아직 자신을 내어주는 부처의 자비심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화자는 산에서 산 사자를 만났을 때 “나는 잡아먹히고 싶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아직 자기희생을 행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부처의 자비, 즉 자기 희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든 일인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화자는 영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다른 생명체가 자신을 희생하여 먹이가 되어 주고, 죽어서 다른 생명체로 변형되어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Samsara)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주기가 계속해서 굽이치고 흘러간다는 것을 화자는 알게 된다(Schuler 31). 이렇듯 스나이더는 불교의 자비와 윤회를 통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을 강조한다.

「사냥16」(“Hunting 16”)에서는 선불교의 자비와 상생의 비전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베푸는 자비에는 생태계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존중 사상이 깃들여 있다. 아힘사야말로 절멸의 위험에 빠진 생태계를 구할 수 있는 생태중심적 사고 체계이다. 부처가 탄생했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말에 “전 세계가 떨었다”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사고인지를 제시한다. “아기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그 아기를 조각내서 개들에게 먹이겠다”는 선사 조주(Chao-chou)의 말을 빌어, 스나이더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의 타파를 피력한다. 그러나 생명의 존귀함과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위로 다람쥐들은 아기에게 도토리를 가져다 준다. 이처럼 다람쥐가 겨우내 먹어야 할 비상식량인 도토리를 아기에게 주는 행위는 동물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이며 생명존중사상이 깃

15) 보살은 현재의 삶을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구현하는 자로 “깨달음을 얻는 길이란 곧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와 하나로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뜻의 ‘상구 보리 하화중생’을 내세운다.

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진귀한 일인가!
삼나무 껍질과 잡초 풀로 아이를 깨끗이 씻어 주고
빌어먹을 의사들은 자기들 집으로 가라고 해라.
아기야 아기야 귀한 아기야
심성이 고운 아기야

손 하나 위로 들고 다른 손은 아래로 향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부처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가 떨었다.
“그 아기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그 아기를 조각내서 개들에게 먹이겠다!”
선사 조주(趙州)가 말했다. 그러나
얼룩다람쥐들, 회색 다람쥐들, 그리고
황금빛 털 땅다람쥐들이
아기에게 도토리를 가져다주었다.
진리란 가장 맛있는 양식이다.

How rare to be born a human being!
Wash him off with cedar-bark and milkweed
Send the damned doctors home.
Baby, baby, noble baby

One hand up, one hand down
“I alone am the honored one”
Birth of the Buddha.
And the whole world-system trembled.
“If that baby really said that,
I’d cut him up and throw him to the dogs!”
said Chao - chou the Zen master. But
Chipmunks, gray squirrels, and
Golden-mantled ground squirrels
brought him each nut.
Truth being the sweetest of flavors. (*M&T* 33-34)

“스스로를 호랑이에게 먹이로 내어주고/ 눈먼 자들에게 (수년에 걸쳐)/ 쌓으면 산이 될 만한 눈들을 기증”(M&T 32)한 부처의 이 같은 행위는 자비이다. 이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스스로를 내어주는 동물들의 자비에 대한 보답인데, 인간과 동물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 자비를 기본으로 하는 상호공존과 상생의 실천을 스나이더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여인들은 팔에 야생 영양과
야생 늑대 새끼들을 팔에 안고
자신의 하얀 젖을 먹인다.
집에 갓 태어난 아기들을 가진 여인들의
가슴은 여전히 부풀어 있다.
짐박이 아기 사슴 가죽 옷을 입고
나무 아래 잠자는
취해 있는 여인들
당신이 뭐로 생각하든, 술이나 진리에 취했다.
의미: 자비심
대행자: 인간과 짐승, 짐승들은
모두 부처의 마음을 가졌다
코요테는 제외하고

Girls would have in their arms
A wild gazelle or wild wolf-cubs
And give them their white milk,
those who had new-born infants home
Breasts still full.
wearing a spotted fawn skin
sleeping under trees
Bacchantes, drunk
On wine or truth, what you will
Meaning: compassion.
Agents: man and beast, beasts
Got the Buddha-nature
All but
Coyote. (M&T 33-34)

야생의 영양과 늑대 새끼들에게 자신의 젖을 먹이는 여인들은 동물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이 시는 “법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완벽한 지혜와 사랑, 자비를 베풀며 서로 상호의존”(EHH 90)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시이다. 모든 존재 즉, 인간과 짐승이 다 같이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스나이더는 말한다. 미국 원주민 신화에서 트릭스터와 같은 신이면서 동시에 광대인 코요테만 제외하고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가 잠재적인 붓다로서 코요테를 배제한 것은 “코요테의 사촌인 개가 불성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 선사 조주의 유명한 일화에 의한 것이다¹⁶⁾. 이에 대해 알몬은 코요테만 불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선사 조주의 일화에 대한 뒤틀린 인유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여기서 코요테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상징으로 쓰였으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Snyder 20).

『아미타불의 서원』(“Amitabha’s Vow”)이란 시에서 스나이더는 그가 깨달은 불교의 진리가 바로 여기, 지금 현세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시는 불교의 주요한 도덕적 영적인 이상인 자비를 스나이더가 가장 강하게 표현한 시이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된 후에라도, 내 땅의 그 누군가
방랑자의 혐의로 감옥에 갇힌다면,
나로 하여금 최상의 완벽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소서

과수원에 있는 기러기들
새로 나온 풀 위의 서리

16) 조주 선사의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에 대한 선문답에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또는 “불성이 없다”해도 틀린다. 이는 자기 생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나이더는 인간과 짐승의 분별을 벗어나도록 이 선문답을 던지고 있다.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이 있는데 누군 있고 누군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라. 코요테만 제외하고 다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버린 인유이다. 즉, 일체중생 개유불성(一切衆生 皆有佛性)이다(『선의 어록』 참고 158).

“If, after obtaining Buddhahood, anyone in my land
gets tossed in jail on a vagrancy rap, may I
not attain highest perfect enlightenment.

wild geese in the orchard
frost on the new grass“ (NN 69-70)

「아미타불 서원」(“Amitabha’s Vow”)은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¹⁷⁾을 제시하고 있다. 위(上)로는 진리를 깨치고 도(道)를 이루어 부처가 되려고 정진하는 동시에 아래(下)로는 고탐(苦海)에서 해매는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제도(濟度)하여 행복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교의 생명이자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이라 할 수 있다. 아미타불(阿彌陀佛)은 서방 극락세계에 머물며 설법을 한다는 부처로, 주로 정토교에서 숭앙하는 구제불이다. 아미타불은 원래 법장이라는 비구승, 즉 ‘법장보살’이었는데 수행 중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의를 품고 48가지 서원을 세우고 오랜 수련 끝에 서원을 모두 이룬 뒤 성불하여 부처가 되어 서방 극락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으며, 지금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설법을 한다고 한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된 후, 내 땅에서 어느 누구라도/ 방랑자의 혐의로 감옥에 갇힌다면,/ 나로 하여금 최상의 완벽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스나이더의 서원(vow)은 아미타불의 “모든 중생이 극락왕생하기 전까지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18번째 서원을 본받고 있다. 이는 극락세계인 이상세계에만 있으면서 불법을 설파하는 아미타불이 아니라 지상에 내려와 현세에서 방랑자들과 함께 하는 부처를 표현한 것이다. 아미타불은 현실의 일상생활에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하고자 한다.

17)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은 중생제도를 강조하면서 등장한 대승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 즉 자신도 이롭게 하면서 타인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정신을 표현한 말이다. 즉 보살이 위로는 자신을 위해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깨닫지 못한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보살의 원래적 표현인 보리살타의 의미로도 파악될 수 있다. 보살이란 본래 보리살타를 줄인 말인데, 보리살타는 인도의 옛말 보디삿트바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이다. 여기에서 보디란 깨달음을 의미하고 삿트바란 중생이란 뜻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보살이 마땅히 해야 하는 자리이타행을 가리키는 것이다.

“기러기들”이나 “풀 위의 서리” 등과 같은 자연의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들에게 까지도 부처의 자비를 베푼다. 스나이더는 선불교를 종교적 차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참선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스나이더는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에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통 불교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스나이더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대승불교의 훌륭한 지적 업적을 가져와 그것을 공동체 생활의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RW 15-16)이라고 하며, 이는 불교전통에서 상실된 “완전히 통합된 삶의 방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스나이더는 “불교에서 미신, 마법, 비이성적인 면을 추려내어서 불교를 일종의 심리적인 ‘치료법’으로 몰아가는 서구의 최근 불교 경향에 반감을 드러낸다. 불교가 근본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수행이자 실천”(WM 25-26)임을 강조한다. 스나이더는 선불교를 종교적 차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참선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스나이더는 인간과 자연이 상호의존하는 것이 먹이사슬에서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미각의 노래」(“Song of the Taste”)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초목의 살아있는 배아와 큰 새들의 알을 먹는 행위는 서로가 서로를 먹는 행위이며 생명의 순환관계를 보여준다. 자연은 포도알 속에서 햇빛으로부터 받은 광합성에 의해 생명을 만들어 내고 우리 인간은 그 포도를 먹고, 자연에 있는 동식물이 서로가 서로를 먹는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나타낸다.

서로 서로의 씨를 먹고
아, 서로를
먹는다.

빵을 입에 베어 문 연인의 입에 입맞춘다
입술에서 입술로.

Eating each other's seed
eating
ah, each other.

Kissing the lover of the mouth of bread:
lip to lip. (NN 169)

위의 시구는 서로 다른 것들은 서로의 생명의 원천에 의지하며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임을 말해준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생존의 차원을 넘어, “생태계의 두렵지만 아름다운 조건”(PW 184)인 신성한 행위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먹어야만 사는 먹이사슬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스나이더는 이 시는 아힘사의 윤리, 비폭력,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그가 알아왔던 북미 원주민과 원주민의 생존과 삶에 대한 필요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한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감사의식을 지내고 다른 생명체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생존하기 위해 사냥도 해야 하고 물고기도 잡아야 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돌봄의 과정을 시작한다. 원주민들은 인간의 특권의식으로 교만하지 않다. 이러한 사고는 자연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사고는 자연 ‘내에서 존재할 때’ 나온다(BF 69). 스튜딩은 “「미각의 노래」가 ‘섭생’에 대한 생각의 완결”(77)이라고 칭찬한다.

「상어고기」(“Shark Meat”)에서도 스나이더는 자연과 인간의 먹이사슬 관계를 일본 체류의 경험을 통해 표현한다. 일본의 섬에서는 점심에 상어고기를 먹는다. 그 상어는 파도를 따라 먼 길을 이동해 와서 섬사람의 점심식탁 위에 오른다.

그 섬은 점심에 상어 고기 먹는다.

한 조각 집어 올릴 때
커다란 끓인 상어 살점 위에 달콤한 된장을 얹어

입술로 가져가니

수마장 넓은 바다, 검은 조류,
수천의 나날들
그의 행로 되거슬러 오른다
우리 그물 헝클어 놓으려
이 어스름의
일부가 되려.

The island eats shark meat at noon.

Sweet miso sauce on a big boiled cube
as I lift a flake

to my lips,

Miles of water, Black current,
Thousands of days
recrossing his own paths
to tangle our net
to be part of
this loom. (NV 178)

알문은 「상어고기」같은 시는 모든 현상의 상호의존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85). 「상어고기」에 대해 스나이더는 “상호의존이라는 복잡한 망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흥미롭고, 아름다운 일이며, 우리가 지구와 자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깨달음”(RW 35)이라고 말한다. 스나이더는 먹이사슬을 소금-돌말-해파리-청어-어부-인간이라고(EHH 31) 묘사하면서, 생태계 내에서 먹이 사슬을 인드라 망의 먹이그물로 표현한다. 먹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요한 상호교환이다. 상호교환에 의해 먹이 사슬은 많은 존재들을 연결한다. 「미각의 노래」와 「상어고기」같은 시들은 일종의 신성한 행위로서 먹는 것을 찬양한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생태계 안에서 상호의존하는 생명성의 호혜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일깨워준다(*PS 70*). 스나이더는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을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생명 순환”(Yamazato, “How to Be” 232) 관계를 끊임없는 에너지의 순환으로 보며, 만물의 유기적 연관 관계를 ‘인드라 망’으로 설명한다.

동물과 식물은 상호간에 서로를 먹고 살아가며, 자연의 도처에는 에너지의 끊임없는 교환, 즉 생과 사의 순환과정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우주 유형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생물학적 욕망과 필요의 영역인 ‘카르마’(karma)로 경전에 묘사되어 있다. 숨 쉬는 모든 것은 배고프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를 피하지 말라. 인드라의 망으로 하나가 되라! (*PS 70*)

스나이더는 생과 사의 순환과정인 에너지의 교환으로 인해 ‘인드라 망’ 안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 스나이더에게 있어서, 먹이그물은 자연이 “이빨과 발톱에 피를 묻힌”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먹이그물은 “선물 교환(생명의 주고 받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군가의 먹이가 되지 않는 죽음은 없으며 누군가의 죽음이 없는 생명은 없다. 희미하게 빛나는 먹이사슬, 먹이그물은 생물권의 신성하고 아름다운 조건이다”(Grace 1).

이런 선물 교환의 친밀감을 스나이더는 의인화된 용어로 표현한다. “이런 하나인 세상을 보다 가까이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존재들을 우리의 몸,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연인들로 여기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속되는 생명에 바치는 공물로 여기게 된다”(Grace 1). 상호간에 선물을 교환하는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얼마나 큰 축제인가!”(*PW 18-19*)라고 스나이더는 말한다. 인드라 망에서 일어나는 ‘선물교환’에서 모든 존재들은 서로 다른 존재들과 삶과 죽음을 주고받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명 공동체는 지속성을 갖게 된다. 스나이더는 만물의 연기성(緣起性)으로 인해 생명공동체의 지속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연기론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들은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반힐은 “먹는 행위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생태학적인 인드라망은 보석들이 아닌 식물, 동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몸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전통적인 인드라 망에 대한 논의에서 생기는 ‘황홀한’ 특성과는 다르다. 이러한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들로 이루어진 인드라 망에서 일어나는 ‘선물 교환(생명의 주고 받음)’은 긍정적이며, 나아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190)라고 역설한다. 스나이더는 법계의 상호관계성을 나타내는 인드라 망을 ‘먹이그물(food web)’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먹이 그물의 질서는 악육강식이 지배하는 잔인한 자연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거룩한 성찬식이다(Devall & Sessions 13).

「밤의 해오라기」(“Night Heron”)에서 화자는 아침에 도시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우연찮게 해오라기 한 마리를 발견한다. 화자는 해오라기가 소란스러운 도시의 해안으로 왜 돌아왔는지를 궁금해 하다가 해오라기가 돌아온 것은 자신이 시끄러운 도시에 다시 돌아온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화자는 도시의 기계들이 준비한 가운데서 존재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오라기 역시 존재하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고 깨닫는다. 다른 동물들이 느끼는 기쁨은 생존의 기쁨이며, 자신이 느끼는 기쁨의 일부도 생존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나이 들고, 단단해지고 점차 잡아먹히는 데서 오는 생존의 경험에서 나온 기쁨이다. 스나이더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서로 간에 유지되는 공동체에서 인간과 동물의 자기 재생 의식을 느낀다고 말한다(Murphy 118).

그 밤에 온 해오라기가 어떻게
또 돌아왔을까?
만의 이 소란스러운 장소로
나처럼.
모든 존재의 즐거움은 나이 들고 단단해지며 그리고
먹히는 데
있다.

How could the
night herons ever comeback?
to this noisy place on the bay,

like me.
the joy of all the beings
is in being
older and tougher and eaten
up. (TI 36)

“모든 존재의 즐거움은 나이 들고 단단해지며/ 먹히는 데 있다” 이는 생태계의 인드라 망 안에서 일어나는 먹이 그물을 말한다. 모든 존재는 잡아먹힘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에 자연계는 지속된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에서 모든 만물의 상호관련성을 보여 주고 있다. 야마자토는 탄생과 죽음의 기쁨은 한 존재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존재에게 도움이 되고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생겨난다고 한다(“How to Be” 240).

스나이더는 먹기 위해 동식물을 죽이는 것은 “신성한 에너지의 교환”이며 “진화를 하면서 상호간의 삶을 공유”하는 것으로 여긴다. 서로의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일어나는 몸의 진화가 바로 “만찬”이라고 한다(RW 89).

알몬은 먹는 행위는 잔인한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경건한 행위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음식에 대한 감사를 가르친다. 음식에 대한 감사는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이런 태도는 미국 원주민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태도이며, 불교 역시 이런 관점에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식을 장려한다. 원시 부족들은 겸허와 감사 그리고 사냥감을 달래는 행위가 고기를 먹고 모피를 취하는 것에 대한 비난에 대해 속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Snyder” 85).

스나이더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을 기꺼이 먹이로 내어주는 동물들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표할 것을 요구한다. “세상은 지켜볼 뿐만 아니라 듣고 있다. 다른 존재들은 먹이로 잡아먹히는 걸 상관하지 않으며 그들은 우리가 감사의 말을하기를 기대하고 자신들이 낭비되는 것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PW 20-21)고 말한다. 반월은 또한 “동물들은 조력자이면서 우리에게 자양분을 준다”(197)고 하면서 먹이그물 내에서 동물이 인간에게 단순한 먹잇감 이상의 의미를 띠는 것을 시사한다.

스나이더는 「아보카도」(“Avocado”)라는 시에서 선(Zen)의 본질에 대해 말한다. 스나이더는 불법을 은유적으로 아보카도에 비유한다. 아보카도의 어떤 부분은 너무 잘 익었고 다른 부분은 단단하고 시퍼렇고 맛도 없다.

보기에는
딱딱하면서도 동시에 미끄럽다,
당신이 그것을 심었으면 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쭉쭉 싹터 나와

사라져 버린다.

Hard and slippery,
It looks like
You should plant it-but then
It shoots out thru the
Fingers-

gets away. (TY 61)

아보카도 안에 들어 있는 크고 둥근 씨가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다. 하지만 아보카도의 씨가 자란다 해도 그것을 쪼개서 열거나 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즉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보카도를 심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스나이더는 우리가 우리의 본래심을 깨달았으면 한다. 하지만 마음의 본성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연의 세계 혹은 사물의 본성으로서 확정된 단 하나의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본성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것을 텅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피해가며 우리 자신의 본성 또한 유동적이고 개방적이고 조건적임을 인정하는 것이다”(NN 서문)라고 스나이더는 말한다. 이 시는 선 공안(Zen koan)과 같은 방식으로 역설로 끝난다. 심었으면 하고 바라는 아보카도 씨는 “딱딱하면서도 동시에 미끄럽다” 당신이 그것을 심

으려고 할 때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 떨어져 버린다.

스나이더는 부처의 본성의 역설적인 특징을 “부처는 찾을 수 없는 자이다.: 당신이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당신은 길을 잃게 된다”라는 말로 표현한다.¹⁸⁾ 「아보카도」는 부처의 역설적인 본성을 잘 나타내는 시이며 스나이더의 선에 대한 철저하고 진정한 이해에 대한 시적 증거이다.

「모두를 위하여」(“For All”)에서 스나이더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모든 존재들에 대한 애정 어린 유대감을 강화한다. 스나이더는 9월 중순 어느 날 아침에 맨발로 시냇물을 건너면서 “아 살아있음 이어”(Ah to be alive)라고 감탄을 하면서 자연과의 친밀한 접촉에 기쁨을 표현한다. “시냇물의 노래, 마음의 노래”인 자연의 소리에 기쁨을 느끼며 다양하고 활기찬 자연과의 영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에서 이 시는 우주의 복잡한 망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헌신을 노래한다. 모든 존재들이 독특하고 “다양하게” 그들 나름의 물리적 외양과 입자의 형성이 다양해도 그것들 모두는 “태양 아래에서” “즐거운 상호침투”를 하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공유한다. 모양이나 생성이 다른 모든 존재들은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인간이든지간에 그들이 서로 즐겁게 상호의존하는 하나의 생태계로 합쳐진다. 이 시는 인간과 자연세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찬양하고 모든 존재의 상호관련성과 상호의존성을 중시한다(Chatraporn 67-68).

얼음같이 차가운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햇빛에 반짝인다.
돌들은 발아래에서 뒤집어진다, 발가락처럼 작고 단단하다
추워서 콧물이 흐르지만
마음속으로 노래하며
시냇물의 노래, 마음의 노래,
자갈 위의 햇빛의 냄새,

18) 스나이더는 자신의 산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리는 찾을 수 없는 원리이다; 당신이 원리를 찾으려고 하면 당신은 그 원리를 놓친다. 당신이 찾지 않으려고 하면 원리를 구한다. 이 불법(Dharma)은 실체도 공(emptiness)도 갖고 있지 않다. 당신이 나무나 돌만큼 열려 있고 완전한 마음으로 삶을 흘러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휩쓸려가지 않을 것이며 오온(skandhas)—오욕과 여덟가지 욕정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탄생과 죽음의 원천이 끊어 질 것이며, 당신은 자유로이 오고 갈 것이다(EHH 75).

나는 충성을 맹세한다.

나는 충성을 맹세한다, 거북섬 안의
온 땅에게,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온 생물이
하나의 생태계로
다양하게
하늘 아래서
모두가 즐거운 상호침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Rustle and shimmer of icy creek waters
stones turn underfoot, small and hard as toes
cold nose dripping
singing inside
creek music, heart music,
smell of sun on gravel,
I pledge allegiance
I pledge allegiance to the soil
of Turtle Island,
and to the beings who thereon dwell
one ecosystem
in diversity
under the sun
with joyful interpenetration for all. (NN 308)

스나이더는 모든 존재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모두가 즐거운 상호침투를 하는 이상적 공동체 ‘거북섬’에서 생태적 평등을 실천하면서 “위대한/ 지구 / 승가”(Great/ earth/ sangha)(TI 73)를 실현하고 있다.

「프레이저 시냇물 폭포 옆에서」(“By Frazier Creek Falls”)라는 시에서도 스나이더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침투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생명의 그물망인 생태계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공존하고 있는 것을 찬양한다.

이 살아서 흐르는 땅은
존재하는 전부이고, 영원히

우리는 그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노래한다

옷이나 도구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This living flowing land
is all there is, forever

We are it
it sings through us—

We could live on this Earth
without clothes or tools! (TI 41)

스나이더의 에세이인 「황갈색 문법」(“Tawny Grammar”)에서 그는 “야생의 자연은 서로 뒤얹혀서 자아와 문화가 짜인 상태 속에서 있다.”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자신을 알면, 나머지 자연은 바로 거기에 있는”(PW 68) 것이다. 스나이더는 “우리가 그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침투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거북섬’에서 땅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불교와 생태계를 합친다. 스나이더는 “불교는 모든 생명과 야생계를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인간의 생명은 야생계의 상호침투하는 마음의 작용에 전적으로 의존한다”(TI 104)고 말해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의존을 강조한다. 야마자토는 “불교와 생태계는 서로에게 자양분을 주고 있다”(“How to Be” 233)고 역설한다.

스나이더의 「기쁨」(“Delight”)이라는 시는 생태계의 인드라 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이다. 모든 만물이 상호침투하고, 상호의존하는 생태계의 망을 인식하는 데서 기쁨이 생겨난다고 한다. 이 기쁨은 내면에서 생겨

나와서 외부 세계로 확산된다. 스나이더에게 있어, 만물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배제하고 관찰할 때 청명하고 즐거운 것으로 인식되면서 스스로 빛을 발하며, 상호의존하는 실재로서 세상을 인식하는 데서 기쁨은 커진다 (Almon, “Buddhism” 88).

기쁨은 놀랍고 공허하고, 얹히고
상호침투하고
서로 포용하고 빛나는
모든 이질적인 것들의 차별을 넘어서
하나의 세상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과 함께
생겨나는 순수한 즐거움이다.

Delight is the innocent joy arising
with the perception and realization on
the wonderful, empty, intricate,
inter-penetrating
mutually-embracing, shining
single world beyond all discrimination of opposites. (TY 113)

위의 시는 불교의 연기설을 인드라 망으로 가장 적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인드라 망 속의 사물들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스나이더는 이 한 편의 시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이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연기성에 대해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헬리팩스(Joan Halifax)는 “불교적 관점에서 바위, 바다, 꽃 등은 그 자체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존재성(beingness)을 공유하고 있다. 사물은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차라리, 이런 관점에서 비롯된 존재성의 조건은 상호관련성과 상호의존성을 의미한다. 겉보기에는 개별적인 존재도 다른 존재들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자아(greater Self), 곧 그 커다란 자아 내에서만 살아 있고 의식을 지니고 있는 생태적 자아(ecological Self)의 한 부분일 뿐이다”(23)라고 말한다.

「만물과 함께 우리는 서원을 한다」(“We Make Our Vows Together

with All Beings”)(*NN* 350)에서 시인은 “샌드위치를 먹고”(Eating a sandwich), 암사슴은 “사슴 풀을 뜯으며”(As a doe nibbles buckbrush), 이들은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다가, 눈발의 고요함을 깨는 “하늘을 가득 채운”(Fills the sky with a roar) 폭격기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스나이더는 이런 묘사를 통해 인간 세계와 동물의 영역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공통된 감수성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생태계’ 속에 동물과 인간을 섞는다. 인간과 암사슴으로 대표되는 자연이 인드라 망이라는 하나의 존재론적 네트워크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화자인 시인과 암사슴의 똑같은 반응은 순전한 우연이 아니라 조화로운 공존이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나이더는 「소나무 꼭대기」(“Pine Tree Tops”)에서 인간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다. 이 시에서 사용된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그림 같은 이미지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가장 선(Zen)적인 요소를 나타낸다. 눈발에 토끼, 사슴 발자국, 즉 동물의 존재와 인간의 자취 한 가운데에 소나무 한 그루가 겨울 하늘 아래 있다.

푸르른 밤에
서리 안개처럼 빛나고, 하늘은 달로
불타오른다
소나무 꼭대기는
푸르스름한 눈빛으로 휘고, 하늘로,
서리 속으로, 별빛 속으로 소멸한다.
부츠 빠걱이는 소리.
토끼 발자국, 사슴 발자국,
우리가 무얼 아는가.

in the blue night
frost haze, the sky glows
with the moon
pine tree tops
bend snow-blue, fade
into sky, frost, starlight.

the creak of boots.
rabbit tracks, deer tracks,
what do we know. (NN 228)

이처럼 선(Zen)에서는 독립된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삶의 바로 그 일상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오직 부츠 삐걱이는 소리만으로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묘사된다. 이 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언어와 공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존재의 다원적(多元的)인 개념을 통한 존재에 대한 선(Zen)의 이해이다. 선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카스트로에 의하면 스나이더의 시는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에 참여하는 자연과의 관계를 반영”(132)한다. 자연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참여가 요구된다.

「빛의 용도」(“The Uses of Light”)에서 스나이더는 자연의 모든 만물에 불성이 깃든 것을 표현하면서 선 수행을 강조한다.

빛이 내 뼈를 따뜻하게 해 준다고
돌들이 말한다.

내 속으로 빛을 끌어들여 나는 자란다고
위에 있는 잎새들이
아래에 있는 뿌리들이
나무들이 말한다.

거대하고 은은한 흰 것이
밤에 나를 이끌어 낸다고.
나방이 날개짓하며 말한다.

무슨 냄새가 난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무엇인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사슴이 말한다.

넓은 평원에
높이 솟은 탑.
그대가 한층 만 더
올라가면
천 리는 더 멀리 볼 수 있을텐데.

禪

It warms my bones
say the stones

I take it into me and grow
Say the trees
Leaves above
Roots below

A vast vague white
Draws me out of the night
Says the moth in his flight

Some things I smell
Some things I hear
And I see things move
Says the deer

A high tower
on a wide plain.
If you climb up
One floor
You'll see a thousand miles more.

禪 (TI 39)

이 시에서 야마자토(Yamazato)는 “이 세상의 돌, 나무, 나방, 사슴 그리고 인간은 대일여래(大日如來, 비로자나불 Vairocana)에게서 나온 정신적 빛에 조명되면서 모두가 상호의존적이고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고 있다”(“How

to Be” 239)라고 말한다. 스나이더는 불교의 만물의 상호의존성과 모든 중생과 나는 서로 떼어 수 없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연기론을 피력하고 있다. 먹이사슬의 광합성의 기능에서 보면, 태양은 “우리의 주요한 음식의 원천”(our primary source of food)(TI 31)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햇빛을 필요로 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생태학의 관점은 불교의 연기론과 일맥상통한다. 머피는 “마지막 연은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관한 옛 중국 격언을 근거로 한 것이며 조금만 다시 조정하면 인식의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한다(119).

「불 8」(“Burning 8”)에서 스나이더는 미국의 위대한 자연주의자인 존 뮤어(John Muir)가 리터(Ritter)산 등반 중 오르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궁지에 봉착한 순간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상황을 묘사한다.

산의 정면을 여러 번 살펴 본 뒤에
나는 산을 이리 저리 재어 보고
주의를 집중하여 발 디딜 곳을 정하였다. 꼭대기까지
반쯤 가서, 나는 갑자기 딱
멈추었다, 팔을 쭉 뻗어
바위에 얼굴을 대어 보니
손발을 움직일 수 없어
올라가지도 내려 갈 수도 없다. 나의 운명은
정해진 듯 했다. 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당혹스런
순간이 찾아올 테고,
절벽 아래 생명 없는 것들이 우루루 광광 떨어지는
빙하로 떨어져 죽을 것이다.

After scanning its face again and again,
I began to scale it, picking my holds
With intense caution. About half-way
To the top, I was suddenly brought to
A dead stop, with arms outspread
Clinging close to the face of the rock

Unable to move hand or foot
Either up or down. My doom
Appeared fixed. I MUST fall.
There would be a moment of
Bewilderment, and then,
A lifeless rumble down the cliff
To the glacier below.

산꼭대기까지 반쯤 올라갔을 때 산을 오르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죽음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묶어는 갑작스럽고 기적 같은 의식의 변화를 겪는다.

정신이 숨막힐 듯한 연기로 차는 것
같았다. 이 끔찍한 어둠은 그러나 한 순간에
그쳤고, 생명이 다시 불가사의할 정도로
투명하게 불꽃처럼 타올랐다.
갑자기 새로운 감각에 내가
사로잡힌 것 같았다. 부들부들 떨던 근육들이
다시 단단해지고, 암벽의 모든 틈과 홈들이
현미경으로 보듯 보였고
발은 하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움직여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았다.

My mind seemed to fill with a
Stifling smoke. This terrible eclipse
Lasted only a moment, when life blazed
Forth again with preternatural clearness.
I seemed suddenly to become possessed
Of a new sense. My trembling muscles
Became firm again, every rift and flaw in
The rock was seen as through a microscope,
My limbs moved with a positiveness and precision
With which I seemed to have

Nothing at all to do. (*M&T* 43-44)

뮤어는 “갑자기 새로운 감각”에 사로잡힌 것 같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경험한다. 선(Zen)의 용어로 겐쇼(kensho), 즉 깨달음의 짧은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자연”의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는 바위와 싸운다기보다는 바위와 하나가 된다. “말은 하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움직여/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았다”는 그의 관찰은 행동하지 않는 행동(wu wei)의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스나이더는 뮤어가 그 자신의 움켜지고 있던 자아를 버리고, 완전히 그 순간의 흐름에 참여하는, 즉 행동하지 않는 행동(wu wei)에 들어간 것을 암시한다. 머피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행동”(wu wei)이라는 무위의 원리와 이성과 논리의 한계로부터 해방, 즉 의식의 방기를 보여 주는데, 이것들을 통해 뮤어는 자아와 타자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다(37).

「까치의 노래」(*Magpie's Song*)에서 스나이더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인간과 동물의 이종(interspecies)간의 의사소통을 묘사한다. 스나이더는 “인간의 영역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인간 아닌 것들을 대변하는 목소리”(RW 159)로 동식물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나이더는 “식물과 동물은 우리의 정치적 공동체의 일원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시집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들릴 필요가 있다”(TI 106)고 역설한다. 반힐은 이러한 신화적이며 의인화된 시각 역시 공동체로서의 먹이그물에 대한 스나이더의 표현의 일부라고 한다. 미국 원주민의 사냥 의식에서는 사냥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기를 바라면서 동물이 스스로 자신을 사냥꾼에게 바친다고 한다(196).

가지 위에 앉은 까치는
고개를 까닥이며 말했다.

“여기에 그 마음이 있다, 형제여
청록색 옥처럼 푸른 비취인,
나는 너를 속이지 않으려다.

미풍을 냄새 맡아봐라
미풍은 모든 나무를 거쳐서 불어온다.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서편 언덕 위에 내리는 눈은
매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쉬면서
따위의 것털 하나-
바람 소리-

여기에 그 마음이 있다, 형제여
청록색 옥처럼 푸른 빛인.”

Magpie on a bough,
Tipped his head and said,

*“Here in the mind, brother
Turquoise blue.
I wouldn't fool you.
Smell the breeze
It came through all the trees
No need to fear
What's ahead
Snow up on the hills west
Will be there every year
be at rest.
A feather on the ground—
The wind sound—*

*Here in the Mind, Brother,
Turquoise Blue” (TI 69)*

여기서 대문자로 쓰인 “Mind”는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의 마음”을 나타내며, 우리를 “본래의 마음”과 연결시키려는 “샤먼의 노래”, 곧 현대적 샤먼의 시도로 보인다. 선불교에서 만물은 부처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부처의 본성의 씨앗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에게도 있으며, 유정물뿐만 아니라 무정물에게도 부처의 본성은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존재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과 특권은 잘못된 믿음이며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된 것이다. 위의 시에서 부처의 본성을 인식하고 부처의 본성을 성취한 까치가 인간 관찰자에게 그의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인간의 본래의 내재된 본성, 즉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둔 “청록색 옥의 푸른 색깔”을 발견하게 한다. “미풍을 냄새 맡아봐라/ 미풍은 모든 나무를 거쳐서 불어온다”고 말하는 까치는 또한 관찰자에게 자연의 정신을 느끼게 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게 한다. 까치는 자신과 함께 관찰자를 평화로이 “쉬게 한다.” 스나이더는 “바람 소리”라는 말을 묘사하면서 자연 세계는 불법(Dharma)의 소리에 스며들어 있다고 암시한다. 까치가 인간 관찰자를 “형제여”라고 부름으로써, 선불교의 만물의 상호 관련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시에는 자연세계에 대한 스나이더의 친밀감, 불자로서의 신념, 미국 원주민의 전통에 대한 존중 등이 잘 드러나 있다. 부처의 본성을 청록색 옥에 비유함으로써, 미국 원주민 문화의 영향을 알 수 있다. 청록색 옥은 미국 원주민 문화에서 보석으로 사용되는 아주 귀중한 광물이다. 까치의 말과 비유적인 언어는 반성과 진리로 이끄는 공안(koan)의 기능을 한다 (Chatraporn 66).

스나이더는 그의 심층생태적 사유에 선불교뿐만 아니라 미국 원주민의 신화와 샤머니즘을 접목한다. 반힐(David Barnhill)은 스나이더가 시작(時作) 초기부터 샤머니즘과 생태학을 연관시킨 것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99).

아시아에 12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전통적인 주술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가 속한 부족사회의 ‘생태학자’라고 할 수 있다. 샤먼은 (남자인 경우도 있고 여자인 경우도 있는데) 인간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포함하는 보다 큰 생태학적 영역 사이의 중간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Barnhill 199-200)

스나이더에게 있어 샤먼이란 초인간적인 지성체들과의 정신적 교감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계발해낸 이들이다(Barnhill 200). 스나이더는 “초자연적인 자연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말하는데 샤먼이나 시인을 통해서 말한다. 샤먼은 야생 생물과 식물의 영혼과 분수령의 영혼을 발언한다. 샤먼은 이를 대신 노래한다”(PS 50)고 말한다.

미국 인디언의 민담에 나오는 신비로운 인물과 고대에 일어난 일이 스나이더의 많은 시에 소재로 쓰인다. 원시 부족들에게서 실행되고 있는 샤먼의 역할을 하는 스나이더는 현대의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오늘날의 “샤먼의 역할과 영적 치료자”를 자처한다. 샤먼은 무의식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시인처럼 샤먼은 찬트(chant)를 통해서 그의 비전을 표현한다. 스나이더의 견해에서 보면 시는 샤머니즘이다. “시인은 부족들에게 반쯤 알려진 존재이다. 이는 샤먼의 고대적 기능과 가깝다”(RW 5)고 스나이더는 주장한다. 스나이더는 시가 실천하는 것은 샤먼의 역할과 관련 있는 치유의 노래를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시의 역할은 샤먼의 역할과 비슷하다. 샤머니즘적인 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듦으로써 치료를 한다. 샤먼으로서 시인은 문화와 자연을 상호의존하는 전체론적인 관계로 회복시킨다(Dean 112).

치유자로서의 시인은 전체라는 더 큰 영역의 여러 층을 주장한다. 첫 번째 큰 영역은 자연 세계와의 동일화이며, 사회적 영역인 작은 인간의 영역이 그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식물, 동물, 바람, 비, 강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시인은 비인간, 즉 자연 세계를 대변하는 목소리이며 실제로 외부 세계에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인간 세계로 그 목소리를 보내기 위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은 지구와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지구의 아들, 딸, 즉 자식들이다. 인간은 자연세계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자신을 완충시킨다. 언어, 관습, 자아, 그리고 개인적인 유리한 전략 모두 명확하게 보는 것에 반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 전체는 자연과의 전체이다. (RW 171-72)

현대의 샤먼의 역할을 자처하는 스나이더는 인간들, 동물들, 지구의 죽음과 재탄생의 네트워크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자연을 대변하고 자연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샤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샤먼적인 견해를

그의 시와 노래에서 표현하고자 한다.

인류학은 무수히 많은 남자와 여자가, 역사와 선사시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비인간인 자연과 대화하면서 깊은 교감을 경험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관습적으로 먹었던 존재들과 이런 대화를 경험한다. 이익을 쫓는 인간들은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자연을 대변하고 자연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성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다. 인간들은 이 복잡하고, 심오하고, 움직이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매우 적절한, 요긴(Yogins), 샤먼, 궁극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다. 모두는 하나이고 모두는 다수이다, 그리고 그 모두는 전부 소중하다는 요기적이고 (yogic), 샤먼적인 견해에 접근할 수 있는 말의 몇 안 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시나 노래이다. (OW 13-14)

스나이더의 시에서는 미국 원주민의 신화에 등장했던 동물들이 많이 나온다. 스나이더는 시에서 태평양 북서쪽 원주민의 신화에 나오는 새, 곰, 사슴과 같은 동물에게 예술적 중요성을 부여한다. 스나이더의 작품 속에 나오는 동물은 인간의 영적인 삶을 재현한다. 코요테는 스나이더의 시에서 트릭스터의 고대 신화적 인물로 재현된다. 스튜딩에 의하면, “코요테는 탄생과 죽음을 초월한다. 동시에 해설자이며 참여자이고 창조자”(82)이다.

스나이더는 새로운 사회의 신화를 창조하고자 한다. 스나이더는 그의 시에 노래를 이용하고,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만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묘사한다. 스나이더는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사는 야생의 원시적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고자 한다. 스나이더는 이러한 원시의식의 구현을 태평양 북서쪽과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던 미국 원주민의 민담에서 찾는다.

스나이더는 동물과 인간의 상호의존적인 삶을 샤먼의 사냥 의식에서 발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글에 잘 나타난다.

샤먼은 완벽한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다. 사냥을 한다는 것은 몸을 사용하는 것이고, 감각을 완전히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 사슴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느끼기 위해 의식을 긴장시키는 것이며, 사냥감이 지나가는 길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새와 바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EHH 120)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 샤먼은 감각적인 힘과 의식을 완벽히 지녀야 했기 때문에 샤먼은 “동물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능력”(RW 107)을 연습해야 했다. 샤먼은 사냥 주술을 사용해서 단순히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출산을 도와주어 그들의 다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EHH 120). 사냥 주술은 사냥감을 우리에게 이끌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우리의 노래를 듣고, 우리의 정성을 지켜본 동물이 자비에서 우러나 연민으로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EHH 120).

「사냥」(“Hunting”)에서 보여주는 자비는 인간이 동물에게서 느끼는 연민이 아니라, 오히려 동물이 인간을 붙잡히 여겨서 인간에게서 느끼는 연민이다. 사냥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사냥 당하는 동물이라고 스나이더는 말한다. 사냥은 “인간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먹어야 산다”(M&T 20)는 것을 동물이 알고서, 동물이 연민의 정에 이끌려 스스로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희생의 행위인 것이다. 동물의 이런 자기희생을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미국 원주민들은 사냥한 동물의 모든 부위를 어느 것 하나 헛되이 버리지 않고 다 유용하게 쓴다. 이런 미국 원주민의 사냥 의식은 사냥을 통한 인간과 동물의 상호의존적인 삶의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약 당신이 고기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는 법과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보존하는 법과 껍질을 말려서 가죽으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줄부터 발굽까지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다면 사슴에게 충을 쏘지 말라”(TI 98)고 스나이더는 말한다. 스나이더의 이런 주장은 사냥을 오락으로 여기는 현대인의 불경 의식에 대한 경고와 동물에 대한 존중감과 감사를 보여주고 있다.

스나이더는 「사냥」시편에서 자신이 말하는 옛 방식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미국 원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통해 자연과 상호의존하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한다. 머피는 「사냥」시편들은 인간의 식량 수집과 영적인 비전을 추구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31).

「사냥 8」(“Hunting 8”)은 사냥감에 대해서 잘 알고, 사냥하는 동물의 영

혼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미국 원주민의 사냥 방식과,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하는 현대식 사냥을 극명하게 대조시킨다. ‘사슴’이 부르는 신화, 노래로 시작하는 「사냥 8」에서 속죄 의식(ritual)없이 저지르는 살육의 장면을 묘사한다. 시의 화자는 ‘현자처럼 울부짖는’(Howling like a wise man) 신성한 사슴을 자신의 재미와 단순한 사냥을 위해서 쫓는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조등 불빛에 춤을 추는, 눈이 부셔서 앞을 못 보는 사슴을 술 취한 운전자가 쏘아 죽인다. 차의 트렁크 안에 가득 퍼지는 사슴의 피와 냄새는 현대인의 아무런 죄의식 없는 무차별한 사냥의 잔인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죽은 사슴의 ‘축 늘어진 혀’는 사슴이 부르는 신화, 즉 사슴의 신성한 노래를 우리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며 사슴과 인간의 영혼의 교류가 단절됨을 의미한다.

밤의 서리가 혀와 눈을
식히는 동안
단단한 맨손으로
아직도 뜨거운 내장을 꺼내며
그 차디찬 사슴뿔.
사냥꾼의 벨트는
바로 하늘 아래 있고
차의 트렁크 안의 따뜻한 피
사슴 냄새,
축 늘어진 혀.

사슴은 나를 위해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바닷물을 마시며
빗속에서 모래사장의 자갈 위에서 잠을 잘 테다.
내 고통을 가없이 여겨
사슴이 죽으러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Pull out the hot guts
with hard bare hands
While night-frost chills the tongue
and eye

The cold horn-bones.
The hunter's belt
just below the sky
Warm blood in the car trunk.
Deer - smell,
the limp tongue.

Deer don't want to die for me.
I'll drink sea-water
Sleep on beach pebbles in the rain
Until the deer come down to die
in pity for my pain. (M&T 27-8)

살리쉬(Salish)족의 사냥 의식(ritual)에 근거를 둔 이 속죄의식에서 사냥꾼이 사슴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나타날 때까지 사슴과 같이 고통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 고행을 한다. 그리하여 사슴이 사냥꾼을 불쌍히 여겨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기를 바란다. 화자는 인간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는 사슴에게 감사와 존중의 의미로 속죄의식을 치른다. 이러한 속죄의식으로 사냥꾼은 자신을 정화하고자 한다. 현대의 샤먼으로서의 시인은 이런 속죄의식을 통해 영적인 지혜를 찾는 시도를 한다. 사냥꾼은 강한 영적, 도덕적 유대감으로 동물과 하나가 된다. 술러는 현대인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그의 자비를 베푸는 것을 배워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대인은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할 것이다(39)라고 경고한다. 살리쉬족의 사냥 의식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이 사냥꾼의 고통을 알고 사냥꾼에게 동물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는 자기희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이다. 이는 동물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이며 생태적 인드라 망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주고 받음(선물교환)이다. 스나이더는 자연과 인간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원주민의 사냥의식과 불교의 인드라 망 안에서 일어나는 생태계 먹이 사슬 관계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스나이더는 북미 인디언의 삶의 방식과 지혜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외부인들에게는 배타적인 인디언들의 생활 방식과 종교의식에 현대인들이 이를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그는 도교와 노자 사상, 인도 철학 등 동양에 관한 폭넓은 지식에 근거한 불교와 생태학을 접목하여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스나이더는 불교의 연기설과 생태학이론을 접목시켜서 생태적 불교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반힐은 “스나이더는 불교의 상호관통과 인드라 망의 이미지를 생태화하는 한편 생태계라는 개념을 불교화 한다”(189)고 역설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 망’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인간과 자연은 인드라 망에서 상호관통하며 그 존재를 공유하는 상호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합쳐진 존재이며 우리 자신의 개별적인 특성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는 특별한 형태나 구조일 따름이다. 따라서 전체 자아(the Whole Self) 없이는 어떠한 자아의 실현도 가능하지 않으며, 전체 자아는 만물(whole thing)이다”(OW 63-64)고 스나이더는 주장한다.

현재의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나이더는 동양 사상과 선불교, 그리고 서양의 사회개혁이 합쳐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나이더는 “서구의 장점은 사회의 개혁이었고 동양의 장점은 근원적인 자아/공에 대한 개인적인 깨달음이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전통적인 법도의 삼학에 포함되어 있는데, 곧 혜(wisdom), 정(meditation), 계(morality)이다”라고 말한다(EHH 92). 불교에서 말하는 삼학(三學)이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계(戒), 대상의 지배,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무분별한 욕망을 지배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정(定), 그리고 그것이 진정 전체와 자기 스스로를 행복으로 이끈다는 존재의 상호의존적 연관구조를 자각하는 혜(慧)”이다(최석호 333). 이처럼 스나이더는 서구의 개혁 정신과 선불교의 혜, 정, 계의 불법으로 현재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해가고자 한다.

IV. 생물지역주의: 거북섬에서 재거주하기¹⁹⁾

1970년대 환경운동이 발전하면서 생물지역주의라는 학파가 생겨났다. 북미 서부지역 캘리포니아, 브리티쉬 콜럼비아에서 주로 일어난 이 운동은 피터 버그(Peter Berg), 레이몬드 대스만(Raymond Dasmann), 게리 스나이더, 스테파니 밀스(Stephanie Mills)가 주도하였다. 그들은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집중된 노력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접근법인 지역에 대한 장소 의식을 통해 환경적인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였다(Lynch 3).

생물지역주의자들은 기존의 임의적인 정치적인 경계들(국가, 주, 군, 도시 등)을 없앴다. 이들은 주로 자연스런 공동체와 분수계에 근거를 두어 생물학적으로 결정지워진 근거에서 생겨난 경계들을 선호했다(Lynch 3). 최근의 연구에서 켄이어(Robert L. Thayer Jr.)는 생물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물지역은 글자 그대로, 어원적으로 “생명-터”(life-place)—지리학적, 기후적, 수문학적(hydrological)이며, 독특한 인간 사회를 부양할 수 있는 생태적 특성을 지닌 (정치적이라기보다) 자연적인 경계로 정의될 수 있는 독특한 지역이다. 생물 지역은 분수계(watersheds)의 지리학, 비슷한 식물과 동물의 생태계, 관련 있는 동일한 지형(예, 특별한 산맥, 초원, 해안 지역)과 그 지역의 잠재력과 자연의 한계로부터 생겨난 고유한 인간의 문화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생물 지역은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사회가 뿌리 내리고 생길 수 있는 가장 지역적인 위치와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Lynch 재인용 3)

생물지역주의의 주요한 용어는 거주(*dwelling*),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재거주(*reinhabitation*)이다. 세일은(Kirkpatrick Sale)은 이 중 거주에 대해

19) 이 장은 『새한영어영문학』 58권 4호 (2016년 겨울)에 게재된 「게리 스나이더의 생물지역주의: 장소성을 통한 생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확장한 것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Lynch 재인용 5).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중요한 임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장소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발아래 있는 토양과 바위의 종류, 우리가 마시는 물의 원천, 종류가 다른 바람의 의미, 흔히 보이는 곤충들, 새들, 포유류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나무들, 계절의 특별한 주기, 농작물의 파종과 수확 시기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다. [...]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문화, 문화와 더불어 자란 사람들의 문화, 도시와 시골 둘 다에서 지형적인 구분에 적용되고 형성된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구분 또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Lynch 재인용 5)

세일에게 있어서 거주한다는 것은 장소에서 의식적으로 깊이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주하기*보다 더 흔히 많이 쓰는 용어가 “*장소에서 살기*”(living - in - place)이다. 장소에서 살기는 버그와 대스만이 설명하듯이 “특별한 장소에서 독특하게 제공되는 삶의 기쁨과 필수적인 것들을 따르는 것과 그 장소를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Lynch 5)이다. 지속가능성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소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Lynch 5). 버그와 대스만이 언급하는 *재거주*는 “장소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의 착취에 의해 해를 입고 파괴되었던 지역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Lynch 재인용 6). 이 아이디어는 환경에 대한 해를 최소화하고 현재의 환경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행동에 의해 야기된 환경적 피해를 고치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다. 재거주를 실천하는 것은 토종식물군을 복원하고 본래의 식물과 서식지에 대한 지식으로 조경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부정적인 사회적, 생태적 영향을 적게 미치는 운송시설을 재조정하는 것과 부산물이나 폐기한 물건으로 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집을 개량하거나, 갈색 들판을 정원으로 바꾸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것 등이

다(Lynch 6).

일각에서 “생물지역주의는 원주민 문화와 생태계에 대한 낭만적이고 불완전한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Taylor 63)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생물지역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은 시골이나 초원지대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고, 농업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집약되어 있어서, 대다수의 인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도시 환경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적어도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 웬델 베리(Wendell Berry)와 같은 몇몇 생물지역주의자들은 “땅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고 있으며, 시골지역과 농업문화를 찬양한다. 피터 버그를 비롯한 많은 다른 생물지역주의자들은 “녹색 도시”(green city)운동을 육성해왔다. 생물지역주의 운동은 공통된 공유하는 생물지역 혹은 분수계 내에서 도시와 시골의 통합에 관한 것이다(Lynch 7).

스나이더는 생물지역주의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생태 인식을 보여주는데, 이는 「거북섬의 재발견」(“The Rediscovery of Turtle Island”)이라는 산문에 잘 나타나 있다. 스나이더는 대스만의 “생태계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ecosystem based culture)와 “생물계를 기본으로 문화”(biosphere based culture)를 언급한다. 대스만에 의하면, “생태계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는 한 사회의 생활과 경계가 자연적 지역과 물의 발원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생물계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는 이익을 추구해서 다른 물의 발원지, 다른 사람들의 영토로 들어가 인간과 자연자원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한다(PS 186).

스나이더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람들을 보존주의자들(Savors)과 이용론자들(Users)로 구분한다. 보존주의자들은 본래의 자연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용론자들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계속 이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주장한다. 양측이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자연을 도구로 보는 서구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스나이더는 이 두 집단 모두 자연을 상품처럼 취급한다고 비판하며(PS 238) 그에 대한 다른 견해로

‘거북섬 관점’(Turtle Island View)을 제안한다. ‘거북섬 관점’이란 식물과 동물의 고통을 이해하고 느끼며 모든 생물체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는 것이다(PS 239). 이처럼 스나이더의 ‘거북섬 관점’은 모든 생물체에 대한 존중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제 존재들, 즉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의 고통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인 것이다.

스나이더는 지역을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러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상호공존의 삶의 터라는 인식을 할 것을 주장한다. 한때 ‘거북섬’(Turtle Island)으로 불렸던 북미 대륙에 정착한 스나이더는 생물지역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거북섬에서 재거주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거북섬에서 재거주하는 삶의 목표는 미국 원주민의 오래된 생활 방식을 배우며 장소에 헌신하는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면서 장소에 대한 ‘원주민성’(nativeness)을 가지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원주민성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며 이상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공동체는 지구에서의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이상적인 공존을 실현한다.

미국에 대해서 말할 때 아메리카(America)라고 하면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여 2백년에 걸친 영어 문화와 유럽인들이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한 활동을 떠올린다. 하지만 ‘거북섬’이라고 하면 오랜 과거, 열려 있는 미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명공동체에 역점을 두게 된다고 스나이더는 말한다(PS 248). 스나이더는 북아메리카를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했으며 북아메리카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문자 그대로 침략자처럼 살아간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미국인들이 미국을 생태지역적 차원에서 발견할 것을 주장한다(RW 69). 15세기 말, 콜럼부스(Columbus)의 북아메리카 대륙 발견은 식민지 개척을 위한 정복이었지 진정으로 거주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이들은 “무모한 새 이주자들”(BF 17)이며, 스나이더가 주장하는 북아메리카의 발견은 생물지역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거주지로서 북아메리카에 재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나이더는 생물지역주의의 목적이 “우리 인간들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구조가 자연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 체

제가 자연계를 알게 되어 스스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TT 13)이라고 말한다. 생물지역주의는 지금까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장소의 복원을 가장 중요한 전제로 삼는다. 이런 관점에서 스나이더는 생물지역주의라는 것은 역사의 변증법에 장소를 끼워넣는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그냥 지나쳐 버렸던 부류들인 동물, 강, 바위, 풀을 지금 우리 역사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PW 85). 따라서 생물지역주의는 지금껏 소외되고 간과되었던, 즉 타자로 여겨졌던 자연 생태계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과 문명을 함께 생각하는 생활양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버그와 대스만에 따르면 재거주하기는 정착지 안과 주변의 생물지리와 생태활동을 익혀서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생명 부양 체계를 복원하며,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다(399). 재거주하기는 인간이 생명 공동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생명체도 인간과 동등한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지, 더 이상 인간의 착취와 남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즉 생명 공동체 안에서 인간과 비인간인 자연이 더불어 상호공존하는 삶을 의미한다. 스나이더에 의하면 공동체는 장소의식을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거주함으로 인해 우리는 공유하는 관심사나, 시, 음악, 이야기가 가치와 비전의 탐색을 공유하는 실천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것이 진정한 정신적인 길(RW 141)이라고 한다. 대분수계에서 우리 자신이 다른 존재보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대등한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한다(PW 24)는 스나이더의 발언에는 자연에 대한 겸허와 존중감이 깃든 생태중심적 평등주의(ecocentric egalitarianism)가 잘 표현되어 있다.

한편, 생물지역주의는 편협하고 한정된 한 지역에서만 가능한 지역주의를 지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생물지역(Bioregion)이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진 곳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같은 지구의 문제들을 외면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스나이더는 이런 비난에 대해 지구와 생물지역은 서로 관통한다는 화엄종의 비전을 생물지

역주의에 반영한다. 키티디즈(Kitkitdizze)²⁰⁾가 거대한 하나의 인트라 망에 속해 있는 일부분인 생물지역이라고 설명한다(Barnhill 193).

생물지역주의가 현대 문명의 도시생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해 스나이더는 생물지역주의가 어떤 원시적인 생활양식이나 유토피아적인 지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적 실천과 한 지역에 머물러 살면서 지구사회에 대해 배우며 지구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이다(PS 247). 이에 덧붙여 스나이더는 생물지역주의의 구성원에 한 장소의 ‘시민’으로서 인간만이 아니라 계곡, 참나무와 철새까지도 포함시킨다. 인간과 자연을 다 포함한 장소는 ‘관습을 만들어 가고 문화를 창도’한다고 언급한다(PS 232-33). 스나이더는 “집-장소의 범위에서 자연을 알고, 집을 근거로 한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지구 전체를 집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을 우리 내면에 지니게 된다”(BF 98)고 역설한다. 스나이더는 생물지역주의가 한정된 편협한 지역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물지역에서 시작하여 전 지구적 생물지역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더 크나큰 생태계”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응집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종종 분수계 시스템을 포함하거나 분수계 범위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더 크나큰 생태계는 보통 군(county)보다 더 크지만 미국 서부의 주(state)보다는 작다. 그러한 장소에 대한 이름들 중 하나가 “생물 지역”(bioregion)이다(PS 225). 생물 지역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르친다. “자연을 사랑하거나”, “가이아와 조화를 이루고” 싶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연세계와 우리의 관계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와 경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진정한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식물들을 잘 알아야 한다(PW 39).

스나이더는 미래의 ‘거북섬’의 주민이 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재거주하려는 땅의 역사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전에 여

20) 스나이더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 3,000 피트 고도에 지은 스나이더의 집. 키티디즈는 캘리포니아 산맥 침엽수림에서 자라는 장미과의 관목식물로서 미국 원주민들이 부르는 이름.

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What Happened Here Before”)란 시에서 스나이더는 3억년 전부터 시작하는 거북섬의 서쪽 기슭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말한다. 1연에서 대륙의 초기 지질학적 역사를 말하고, 2연에서는 8천년 전의 서부 산맥의 형성, 서부 산맥 지역의 금의 퇴적을 묘사한다. 3연에서는 3백만년 전 페더강(the Feather), 베어 강(the Bear), 유바 강(the Yuba)과 같은 네바다 시(Nevada city) 지역 북캘리포니아의 주요한 강을 이루는 물의 형성을 말한다. 동식물들을 열거하면서 여기에 살려고 왔다고 말하면서, 동식물들이 이미 거북섬의 거주자였음을 말한다. 그리고 나서 4만년 전에 인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40,000-

그리고 인간들이 바구니 모양의 모자와 그물을 들고 왔다
 땅 아래에 겨울 집을 짓고
 주목나무 활을 녹색으로 칠하고
 소년 소녀들은 춤을 추고 축제를 열었고
 연기 피어오르는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125-

그런 다음 백인이 왔다. 큰 호스로
 나무와 둥근 돌들을 집어던지며
 그 오래된 사금과 금을 채취하며
 말들, 사과 과수원들, 카드 게임들
 총기 난사, 교회들, 감옥이 생겨났다

-40,000-

And human people came with basket hats and nets
 winter-houses underground
 yew bows painted green,
 feasts and dances for the boys and girls
 songs and stories in the smoky dark.

Then came the white man: tossing up trees and
boulders with big hoses,
going after that old gravel and the gold,
horses, apples-orchards, card-games,
pistol-shouting, churches, country jail. (TY 79)

최초의 거주자였던 미국 원주민들은 채집과 수렵을 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들의 삶은 축제와 노래가 있는 낙원의 삶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125년 전 골드 러쉬가 일어난 지역에 나타난 백인들은 미국 원주민의 낙원 세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이용, 착취하기 시작했다. 백인들은 나무를 베어내고 바위를 들어내면서 사금과 금 채취를 하고, 자연 채집이 아닌 과수원과 같은 농경을 시작한다. 농경과 금 채취 때문에 땅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백인들은 카드놀이와 같은 사행성 오락, 총기 사용으로 인한 범죄와 동물에 대한 무자비한 살상, 교회와 감옥이 생겨나는 부작용을 낳는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파괴되어 버린다. 머피(Murphy)는 “백인들이 거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땅과 이미 거기에 존재했던 인간과 비인간들을 자신들에게 적응시키려고 왔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126). 이에 스나이더는 “땅은 땅 그 자체에 속할 뿐”(TY 80)이지만, 인간들이 그 땅을 인간의 편리대로 마구 개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지금,

.....

매일 새벽 전투기가 북동쪽으로 굉음을 내며 난다.
내 아들들은 그들은 누구냐고? 묻는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존재하는 법을
아는 자가 누구인지

큰 어치가 소나무에서 날카로운 소리로 외친다.

now,

.....
military jets head northeast, roaring every dawn.
my sons ask, who are they?

**WE SHALL SEE
WHO KNOWS
HOW TO BE**

bluejay screeches from a pine. (TI 80-1)

시인과 아이들은 야외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야영하는데, 아이들은 순진하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답하지 않고는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다. 거주자로서의 상태는 존재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다. 시인과 아이들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암시된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장소에 온전하게 관련을 맺고 살며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PS 247)인 이들은 그 지역의 전 역사를 알고 사는 존재들이다. 이들이야말로 한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는 이 땅의 재거주자들인 것이다. “소나무에서 날카로운 소리로 외치는” 큰 어치는 새라기보다는 머리 위의 “군용 제트기”에 대응하려고 도전하는 인간을 암시한다(Murphy 126).

몰스워쓰(Charles Molesworth)는 “존재하는 법을/ 아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 도전적 주장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와 선사시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군의 세력과 그 지역의 역사도 구체적으로 잘 아는 거북섬의 재거주자들이라고 언급한다(153). 장소에 정착하기 위해서 장소에 대한 집사로서의 책임감을 수용해야 하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는 고장의 생태적, 지리적 조건을 알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온전한 자연세계와 그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작업의 한 부분인 것이다”(RW 16)라고 스나이더는 말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자연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스나이더에게 있어서 지역과 숲은 단순히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초월적이고 심오하며 상징적인 의미를 띤다.

숲과 연못, 바다나 초원 안에 있는 생명체들의 공동체는 절정(Climax), 즉 ‘치너림’(수많은 종들(species), 해묵은 뼈 조각들, 수없이 많은 썩은 나뭇잎들, 에너지가 지나가는 복잡한 통로, 나무에 구멍을 파고 서식하는 딱따구리들, 작은 풀 더미 위에 뭉쳐진 토끼털)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 상태에서는 안정성이 상당해서, 더 단순한 체계에서는 하늘로 사라지거나 하수로 폐기될 수 있는 많은 에너지가 절정의 에너지 땅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RW 173)

생명 현상의 절정은 생명체들이 죽은 생명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른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스나이더는 이런 절정상태를 이상적인 생태계로 보며, 이런 이상적인 생태계가 바로 지역 공동체의 이상형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숲속의 공동체는 자연, 동물, 식물 등의 유정물과 무정물도 포함하는 인간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닌, 모두를 포함한 생명공동체이다.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기보다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스나이더의 시에 나타나는 주요한 주제는 땅(장소)이다. 스나이더의 시에서 땅(장소)은 단순한 자연배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의 한 부분이다. 장소는 시공간을 통과하는 유동성이 있다. 장소는 다른 것을 쓰려고 앞에 썼던 것을 지우면서 계속 사용하는 양피지 위에 쓴 또 한 차례의 글들처럼 대초원이었다가 침엽수림이 되었다가 다음은 너도밤나무 숲이 되는 유동성이 있다. 지구 전체는 하나의 커다란 명판으로서 현재와 과거의 소용돌이치는 힘들이 수없이 겹쳐진 자취를 담고 있다. 각 장소는 그 자신만의 장소이며 영원히 야성적이다(PW 27). 장소의 이해는 여러 겹의 이야

기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읽어내기 위한 노력이다. 모든 지역은 야성을 가지고 있다. 야성은 사흘이나 열흘이 걸릴 수도 있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다. 그것은 당신들 대부분이 살고 일하는 영토의 저 멀리 높은 거친 끝자락 혹은 깊은 숲속과 늪지대의 끝이다(PW 28). 스나이더의 야성의 재발견에 대해 폴섬(L. Folsom)은 스나이더의 중요한 업적은 야성의 재발견이며, 야성을 문명 속에서 다시 성장하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Devall & Sessions 재인용 84). 장소에 대한 이해는 그 장소만이 갖고 있는 장소의 역사와 야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도시 문명에서 사라진 야성을 다시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야성의 회복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스나이더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PS 82) 보기 때문에 스나이더의 땅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본다. 한 장소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이란 인간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장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스나이더는 인터뷰에서 유럽이 부여한 아메리카라는 이름 대신에 거북섬이라는 이름을 택하고, 임의적이고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경계를 없애 버려 그 땅의 진정한 모습인 산맥과 강, 나무, 비의 영역을 바라보는 것이 땅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RW 69). 땅(자연)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야말로 생태중심적인 삶이다.

거북섬은 수천 년을 이곳에서 살아왔던 원주민들의 많은 창조 신화에 의하면 이 대륙에 대한 옛 이름/ 새 이름이며, 최근에 와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북미’를 대신하여 다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지구나 이 우주가 위대한 거북이나 ‘영원한 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아이디어는 세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의 이름, 이 이름에 의해 우리는 자연 경계를 따라 형성된 식물지대, 자연 지리, 문화적인 영역의 생명 공동체인 이 대륙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미합중국’과 그들의 주와 군(county)들은 여기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임의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부담스러운 이름들인 것이다. [. . .] 우리 고대적의 결속을 이루기 위해 그러한 뿌리에 우리는 다시 귀를 기울여 이 거북섬에서 서로 공존의 작업을 하자. (TI 서문)

스나이더의 목표는 “거북섬의 ‘다시 태어난’ 원주민”(PS 234)이 되는 것이다. 거북섬이라고 적절히 불리는 이 대륙 위의 집에서 진정으로 살기를 바라는 새로운 ‘미국 원주민’이 되는 것이다(PW 40).

재거주자란 8천 년 간 계속된 문명의 결실을 집적했거나 또는 헛되이 낭비한 산업 사회를 떠나 땅으로, 장소로 회귀하기 시작한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런 일이 존재들이 상호의존성과 지구의 한계에 대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장소에 헌신하는 삶이 가지는 현실적 요구,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장소에 집중되고 있는 햇빛과 녹색 식물 에너지에 의지하는 삶이란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대단히 치열한 것이기에 또한 도덕적이며 영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PS 190-91)

재거주자가 사는 집과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은 새로운 삶과 새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문명을 거부하고 장소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스나이더는 자신이 이름 지은 “키티디즈”(Kitkitdizze) 집을 지었다. 키티디즈라는 미국 원주민의 이름을 선택한 것은 장소를 기반으로 한 환경과 결합되는 삶을 살고자 함이다 (Yamazato, “Kitkitdizze” 10).

스나이더는 또한 “장소에 속하는 ‘원주민성’(nativeness) 의식”(PS 234)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원주민성은 재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원주민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와 태도이다(RW 86). 하지만 ‘원주민성’은 대지와 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자신이 사는 곳을 정확히 알고서, 그 장소에서 관계를 맺고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지속성을 가질 때 ‘원주민성’의 식은 생겨난다.

십여 년 간 일본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돌아와 시에라 네바다 산기슭에 정착하게 된 스나이더는 자신을 “캘리포니아 북쪽 시에라 네바다에 있는 유바 강 군(Yuba River county)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PW ix)으로 소개한다. 그가 정착한 곳은 “북쪽 시에라 네바다의 서쪽 산기슭, 해발 3,000 피트에 있는 유바 강 분수계, 검은 참나무, 삼나무, 더글라스 소나무, 폰데

로사 소나무가 있는 공동체”(PW 41)라고 밝힌다. 스나이더는 인간이 편에 따라 임의적으로 나눈 정치적 행정구역이 아닌 자연 지리적인 경계와 산림의 분포를 나타내는 생태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거주지를 밝힌다. 야마자토는 “재거주자가 사는 집과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은 새로운 삶과 새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Kitkitdizze” 10)고 한다.

골환선원(Ring of Bone Zendo)²¹⁾과 킷키디즈는 장소에 대한 공동체적 태도를 배양하고 새로운 지역사회에 중심 역할을 한다. 선원은 종교적인 훈련을 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조, 즉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장소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의 중심이다. 스나이더는 “장소의 중심은 집”이고, “집의 중심은 화로”(PW 26)이며 “모든 탐색은 집에서 밖으로 이루어진다”(PW 26)고 말하면서 집과 장소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킷키디즈집의 중심인 화로는 골환선원이다. 골환선원에 모여든 사람들은 땅과의 정신적이고 생태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스나이더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골환선원은 장소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 스나이더는 장소와 관련해서 골환선원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골환선원은 좁은 수도원적이고 일본적인 불교가 아닌 보다 중국적인, 즉, 더 일찍 생긴, 덜 규범적이고, 세계적인, 생태학적이고 즐거움을 주는 “첸”(Chan 중국불교)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가 6년 동안 공부했던 대덕사(Daitokugi) 수도원 선원에서 배운 형식을 첸에 접목했다. 초기에는 반야심경(Hannyua Shingyo), 임제종의 기록물(Linji-Lu), 시법단(Platform Sutra 중국 첸의 경전)과 같은 텍스트로 강연을 하였지만, 티베트의 노래, 마이두(Maidu)족의 신화, 생태학 논문도 읽고 토론했다. 우리는 거북섬의 물과 바람과 함께 조화를 이룰 필요성을 인정했다. [. . .] 여자-남자-어린이-집-땅-그리고 모든 존재들에게 바치는 창조적인 헌신, 즉 함께 하는 정신은 오랫동안 이 승단(Sangha)의 영감에 중심이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다. (B.A.

21) 골환선원(Ring of Bone Zendo)은 킷키디즈에 있는 임제종과 소토학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명상과 선 수련을 하는 선원이다. 스나이더의 절친이며 시인인 루 웰치(Lew Welch)의 시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 모든 것의/ 청정한 시냇물 속에서/ 내 스스로 보았다/ 골환을.” (I saw myself/ a ring of bone/ in the clear stream/ of all of it.)

스나이더의 선 수행이 다이토쿠사(대덕사)에서 배운 “형식”을 적용한 일본 식이지만, 그는 전통을 제도화한 “좁은 수도원적인” 형식에 회의감을 느낀다. 게다가, 일본식 모델을 초월한 스나이더의 선원에 대한 개념은 집 안에 있는 선원에서 하는 마이두족의 신화, 티벳의 노래, 생태학 등의 토론 주제에 반영되어 있듯이, 선 수행뿐 아니라 생물지역주의적 관점을 실천하고 있다. 야마자토는 스나이더가 지역과 장소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현대 산업문명에서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집과 장소를 되찾는 것이 재거주의 진정한 의미라고 본다(“Kitkitdizze” 15). 또한 반힐은 스나이더의 생명공동체는 “후기 문명사회의 하나의 대안적 공동체가 된다는 점에서 혁명적”(210)이라고 평가한다.²²⁾ 장소를 중심으로 모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장소에 속한 인간으로서 자연의 모든 존재들의 집인 거북섬에 존경을 바치며 거북섬에서의 재거주라는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스나이더는 「계곡 사이의 강」(“River in the Valley”)이라는 시에서 자연의 살아있는 에너지에 참가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세 가지 방식을 전달한다(Murphy 137). 스나이더와 아들 카이(Kai)와 겐(Gen)은 일요일에 버려진 철로 콘크리트 건물에서 수천 마리의 제비가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것을 본다. 스나이더는 제비들을 발견하고서 자신의 아들들의 행동을 관찰한다. 겐은 제비의 선회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서 작은 원을 그리며 달리면서 깔깔거리며 웃는다. 카이는 날아가는 새의 행로를 콘크리트 교각에 기대선 채 조용히 눈으로 뒤따라가 본다. 이때 스나이더는 좀 더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의 양말에서 풀씨를 떼어냄으로써 풀씨의

22) 골환선원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매년 모여들고 있으며, 골환선원은 캘리포니아와 다른 지역에서도 생겨나고 있는 점에서 반힐의 평가를 입증한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환영받으며, 골환선원에 모인 사람들은 장소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자급자족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 불교의 3가지 보석(Buddhism's Three Treasures)은 공동체(Sangha), 불성, 혹은 부처(Buddha)와 가르침(Dharma)이다. 골환선원은 이웃, 물분수계, 마을, 군 그 이상을 아우르는 공동체(Sangha)이다<www.ringofbonezendo.org/images/12-2015zendobrochure>.

확산에 참여한다(Scigaj 249). 이는 양말에서 떼어낸 풀씨가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토양에 뿌리 내리고 꽃을 피움으로써, 인간도 한낱 자연의 원리에 동참하는 것을 보여 준다. 스나이더는 아버지로서의 행동과 먹이 패턴의 일부로서 씨앗을 흙감으로써 식물의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수많은 동물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서터 뷰트 북쪽으로부터
우리는 라센 산 봉우리 덮인 눈 보고
데졸레이션 봉우리들 남쪽
시에라 네바다의 뚜렷한 윤곽을 본다.
한 아이가 묻는다, “강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산속 실개천에서, 합쳐져서 여기로 온다
그러나 강은
그 전체가 어디에나 있다.
모두 한꺼번에 흐르고,
모든 곳이 하나이다.

From north of Sutter Buttes
we see snow on Mt. Lassen
and the clear arc of the Sierra
south to the Desolation peaks.
One boy asks, “where do rivers start?”

in threads in hills, and gather down to here—
but the river
is all of it everywhere,
all flowing at once,
all one place. (NV 267)

한 아이가 “강은 어디에서 시작해요?”라고 강의 원류에 대해서 묻는다. 이 질문에 스나이더는 “실낱” 같은 물줄기가 강을 이루기 위해 모여든다고 설명한다. 강물처럼 세상도 고립된 장소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흘러가는” 것이다(Murphy 137). 스나이더는 아이들에게 완전한 한 장

소를 보도록 가르친다. 전체가 서로 속으로 상호침투하는 인드라 망에 속한 것임을 보여준다. 야마자토는 이 시의 결론 부분에 관해서 “스나이더는 만연된 지식을 쪼개는 방식을 거부하고, 대신에 아들들에게 상호침투하는 전체— ‘모든 곳이 하나’인 장소를 보도록 가르친다”(“How to Be” 240)고 주장한다. 스나이더는 두 아들들에게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우리 인간은 인드라 망의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장소 속의 인간으로서, 인간과 장소의 관계를 가르친다.

「조절 방화」(“Control Burn”)에서 시인은 시에라 네바다 숲속의 생태에 알맞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삶의 지혜를 보여준다. 스나이더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요세미티 공원의 등산로 작업 인부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불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한다.

인디언들이
여기서
해오던 일은, 매년,
야생덤불을 태우는 것이었다.
숲 속에서, 협곡 위로,
키 크고 짙은
참나무 소나무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 키 큰 나무들 아래
풀들과 키 작은 잡목
불길이 치솟기에는
결코 충분치 않은 연료.

.....

불은 오래된 이야기,
나는
도움이 될 질서의식으로,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며,
불로 내 땅을 돕고 싶다.
뜨겁고 깔끔한

불.

What the Indians
here
used to do, was,
to burn out the brush every year.
in the woods, up the gorges,
keeping the oak and the pine stands
tall and clear
with grasses
and kitkitdizze under them,
never enough fuel there
that a fire could crown.
.....

Fire is an old story.
I would like,
with a sense of helpful order,
with respect for laws
of nature,
to help my land
with a burn, a hot clean
burn (NN 219)

이처럼 스나이더는 처음 이곳의 원주민들(니세난족)이 실행했던 조절 방화의 방식이 진정으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니세난족(Nisenan tribe)은 야생 덩불이 울창하게 되어 생기는 자연발생적인 불을 예방하고 좀 더 큰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잡초나 야생 덩불들을 일부러 불을 내어 태워 없애 줌으로써 산불도 예방하고 키 큰 수목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왔다. 산림 감시원으로 일하면서 자연발생적인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봐 왔던 스나이더는 이 부족의 오래된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자연에 도움이 되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긴다. “만자니타”와 “도끼밥”같은 키 작은 야생 덩불들을 사람들이 적절히 태워서 제거함으로써 “키 크고 쪽 뻗은” 참나무와 소나무들이 더 잘 자라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인위적인 산불은 자연발생적인 야생 산불을 예방하고 키가 큰 수목들로 구성된 울창한 숲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스나이더는 “현재 상태에서 야생으로 방치하는 일은 땅을 다시 초기 단계의 덤불로 만들어버려 산불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같다”(PS 260)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거북섬의 초기 원주민의 삶의 지혜와 현재의 산림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조절 방화를 하는 것이 결국엔 자연발생적인 큰 불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스나이더는 말한다. 불은 적이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목재가 울창한 고지대에서부터 참나무와 풀이 있는 산기슭에 이르는 거대한 시에라 네바다 지역은 거대한 하나의 불에 적응된 생태계이다. 이제 사람들은 “조절”(control) 이라는 말 대신에 “처방 불”(prescribed burn)이라 부른다(BF 85-87).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숲을 불태우는 것을 허용하는 「조절 방화」는 “자연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코모너의 법칙을 강조한다(Devall & Sessions 재인용 155). 또한 머피는 “조절 방화는 미국 문화가 요구하는 일종의 정화의 이미지이며, ‘뜨겁고 깔끔한/ 불’은 혁명적인 사회 변혁 혹은 갑작스러운 격변”(115)이라는 비유적인 해석을 한다.

「야생 버섯」(“The Wild Mushroom”)에서는 킷키디즈 숲에서 스나이더가 아들 카이와 함께 숲을 탐험하면서 아들 카이에게 킷키디즈 숲의 일원이 되는 법과 숲 속에 살고 있는 버섯들과의 공존, 즉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가르친다. 어떤 버섯은 너를 몹시 아프게 해서 신에게 데려간다고 버섯이 말해주기도 한다.

관 모양의 주둥이가 붉은 색이라면
절대로 불리터스를 먹지마라
아마티아스로 부터 멀찍이 떨어져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형제여 너는 죽을테니깐.

그래서 여기 버섯 가족이 있네
멀리 날아가서 사랑스러운 자손을 퍼뜨리네
식량으로든, 즐거움을 위해서든, 독으로든

그것들은 인간에게 유용하다.

Don't ever eat Boletus
If the tube-mouths they are red
Stay away from the Amanitas
Or brother you are dead.

So here's to the mushroom family
A far-flung friendly clan
For food, for fun, for poison
They are a help to man. (TI 46)

위의 시구에서 스나이더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버섯에 대한 유용한 지식은 키티디즈 숲에 재거주하는 시인 자신과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시인과 아들은 버섯 따기를 통해 거북섬을 알아가며 거북섬에서의 재거주를 위한 준비과정인 것이다. 키티디즈 숲의 탐험은 거북섬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스나이더는 자연과 인간이 상호침투의 기쁨을 느끼며, 버섯 가족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숲 속에 있는 버섯은 북미의 이곳에 있는 시인의 가족과 공존한다(Yamazato, "How to Be" 243). "아마티아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형제여 너는 죽을테니깐"라고 버섯이 인간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며, "형제여"라고 부르는 버섯과 스나이더 가족의 공존은 결국 인간과 비인간인 자연과의 공존이며 이상적인 공동체에서의 바람직한 삶이다.

「인종식물학」("Ethnobotany")에서 키티디즈 숲에서 재거주를 시작한 시인은 후손들에게 키티디즈 숲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주고자 한다. 숲을 탐험하는 도중 모르는 버섯을 먹고 나서 "나는 약간 아팠을 뿐이다"는 예를 보여주면서, 스나이더는 숲의 탐험이 즐겁고 생소하지만 가끔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약간 불룩한 참나무 잎들
사슴들이 문지르고 걷어찬 것,
볼리터스(버섯).

그 한 종류인 앨리스 이스트우드
분홍색으로 유독성;

다른 종류로 노란 빛깔의 에둘리스
“식용으로 최상품”
다만 난 약간 아팠다—

다 맛보고 나서, 그 지식을 후세에 전하라.

And slightly humping oak leaves
deer muzzle and kick it,
Boletus.
one sort, Alice Eastwood
pink, and poison;

Two yellow, edulis
“edible and choice.”
only I got just so slightly sick—

Taste all, and hand the knowledge down. (NN 239)

스나이더는 땅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땅(자연)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연장자의 역할과 공동체내의 인간과 비인간인 자연간의 결속감을 보여준다. 「인종식물학」(“Ethnobotany”)과 「야생 버섯」(“The Wild Mushroom”)에서 스나이더는 키티디즈 숲의 탐험과 사람들이 땅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장소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를 보여준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한 연장자로서의 삶의 경험과 장소 의식을 아들과 키티디즈 숲의 미래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다.

카스트로(Michael Castro)는 송어, 사슴, 메추라기, 돌고래, 버섯, 딸기 등에 대한 스나이더의 세밀한 관찰은 살아있는 자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며, 자연을 존중하는 심도 깊은 인식의 참여적인 관계를 반영한다고 한다(132). 자연을 존중하고 참여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 스나이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 세계를 알고, 그 자연세계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작업의 일부분이라고 한다(*RW* 16). 이처럼 스나이더는 자연을 깊이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공감하고자 한다. 스나이더의 시는 결국 인간과 자연이 균형을 유지하며 상호공존해야 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내일의 노래」(“Tomorrow’s Song”)에서 스나이더는 숲과 그 속에 사는 생명체들의 대변자가 된다. 그는 “생물지역주의적 관점에서 생물지역에 사는 인간 뿐만 아니라 나무와 강, 산, 동물, 계곡, 참나무, 철새들에게 시민권”(PS 232-33)을 부여하고자 한다.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일방적일 수 있겠지만 그 주장에는 숲과 그 숲속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감이 내포되어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야마자토는 “거북섬의 신화를 창안하고 산문과 시에서 독자들에게 그것을 펼침으로서 그는 독자들이 현대 문명이 기초하고 있는 옛 신화의 타당성을 재고하도록 촉구한다”(“How to Be” 245)고 말한다. 스나이더는 “옛 신화”인 산업주의에 반대하고 ‘거북섬’의 모든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무생물의 권리까지도 옹호하고 대변한다.

미국은 20세기 중반과 후반에
서서히 위임 통치를 잃었다
미국은 산과 강, 나무와 동물에
투표권을 결코
주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외면하고
신화들이 죽어간다: 심지어 대륙조차 영구한 것은 아니다.

The USA slowly lost its mandate
in the middle and later twentieth century
it never gave the mountains and rivers,
trees and animal,
a vote.
all the people turned away from it
myths die; even continents are impermanent (*TY* 77)

몰스워쓰(Molesworth)는 동식물과 강과 산 등에 투표권을 주자는 스나이

더의 주장은 매우 도전적이면서 비전통적인 주장이라면서, “야생과 자연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스나이더의 희망의 일부인 이 주장은 자연에 대한 존중과 사회주의자이면서 인문주의자의 정치적 비전의 최종적인 중재로 여겨진다”(153)고 말한다. “미국은 서서히 위임 통치를 잃었다”는 진술은 민주주의의 정의 안에 비인간인 자연을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임을 나타낸다. 스나이더는 독자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한다. 스나이더는 옛 방식으로 거주하는 문화를 사람들이 채택함으로써 대륙이 ‘거북섬’의 상태로 돌아가는 미래를 예측한다. 스나이더는 미래는 대륙의 본래의 거주자들의 문화적인 실천과 노동의 상당 부분이 채택하는 후기 화석연료 경제 즉 후기 산업 경제를 기본으로 건설될 것임을 내포한다. 어머니 지구와 “야생”에 봉사하는 자연을 근본으로 하는 가치를 정립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의 ‘거북섬’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Murphy 125).

메이시(Joanna Macy)는 “인간이 숲이나 산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물, 식물, 무정물 등으로 구성된 ‘모든 존재들의 회의’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다(진우기 재인용 275). 스나이더는 ‘모든 존재들의 회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장소에 대해 매우 구체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무, 새, 양, 염소, 소, 야크 등 야생 동물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을의 회의는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생물체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PS 80).

생물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는 여러 가지 성질의 공동체가 얹혀 있는 것이다. 생물지역주의에 입각한 공동체는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회복한 공동체, 즉 정치 공동체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생물지역주의가 현재 해내야만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TT 18). 이런 생물지역의 정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는 생태적인 장소 정치라고 불린다. 닷지(Jim Dodge)에 따르면 장소 정치는 기존의 모든 상호의존적 형태들 그리고 모든 생명과정들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생물학적 실재론’에 의거한 정치이다(문순홍 재인용 351). 공동체에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사람 아닌 생물들도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포함되어 있다. 바로 장소 정치는 사람

이든 사람이 아니든 살아 있는 것들의 실재를 모두 인식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장소 정치란 인간들만의 경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무, 식물, 새 그리고 동물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며, 이 전체와 대화함을 전제하고 있다(문순홍 351).

「혁명 속의 혁명 속의 혁명」(“Revolution in the Revolution in the Revolution”)에서 스나이더는 인간들이 동물, 나무, 공기, 물, 풀들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자원으로만 생각해 왔지, 지구라는 공유지의 공동 사용권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나이더는 “인간이 지구 행성의 주요한 착취자”(PS 47)라고 생각한다.

“민중에서 민중으로” 가장
혁명적인 양심은 가장 악랄하게 착취당한 계급에서
발견된다:
동물들, 나무들, 물, 공기, 초목들.
.....

만일 문명이
착취자이면, 민중은 자연이다.
그리고 당은
시인들이다.

“From the masses to the masses” the most
Revolutionary consciousness is to be found
Among the most ruthlessly exploited classes:
Animals, trees, water, air, grasses.
.....

If civilization
is the exploiter, the masses is nature
and the party
is the poets. (NN 183)

스나이더는 자연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의식 자체가 ‘착취’라고 본

다. 따라서 인간의 이러한 ‘의식’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즉 인간중심주의 사고를 ‘혁명’해서, 생태계 구성원에게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주는 혁명이야 말로 진정한 혁명인 것이다. 그리고 혁명적 당의 중심에 바로 시인을 자리매김한다.

스나이더는 「아이들을 위하여」(“For the Children”)에서 미래의 어느 시기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희망과 조언을 담고 있다.

다음 세기에
아니면 그 다음 세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꿀짜기며, 초원이며
우리는 평화롭게 거기서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룩할 수만 있다면.

이 다가오는 산정들을 오르며
너희에게 한마디, 너희
그리고 너희 아이들에게 한 마디:

함께 머물고
꽃을 배우며
가벼이 떠나라.

In the next century
or the one beyond that
they say,
are valleys, pastures,
we can meet there in peace
if we make it,

To climb these coming crests
one word to you, to
you and your children:

*Stay together
learn the flowers*

go light. (TI 86)

스나이더가 꿈꾸는 이상적 공동체가 내일 당장 도래하지 않는다 해도 “다음 세기, 아니면 그 다음 세기에”는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스나이더는 말한다. 자연의 대지에서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며, 자연을 알아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스나이더가 말하는 ‘거북섬’이다. 물스워쓰는 마지막 3행에 대해 “이것은 정치적 공동체, 자연에 대한 공경, 그리고 금욕적인 품위라고 비유하며 스나이더의 모든 가치는 이 세 가지 명령에 반영되어 있다”(154)라고 말한다. 스나이더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류하며 지역의 현실과 관계를 맺는 응집력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머물라”고 말한다. “꽃을 배우라”는 명령은 자연 세계를 과학적, 직관적으로 알라는 의미이다. 자연 세계의 일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에서 “가버이 떠나라”는 명령으로 이 시를 간결하게 끝맺는다.

스나이더에게 있어서 재거주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생태계와 개인적인 유대를 재설정하는 것이고, 거주와 땅 사이의 같은 종류의 기술과 방법을 설정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다. 스나이더의 재거주에 대한 생각은 헉슬리(Aldous Huxsley)의 “지구상의 이 위도에서 이 섬에 있는 나머지 생명체들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이 우주에 심어야 한다”는 로렌스(D.H. Lawrence)의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이다(Janik 111). 스나이더는 “건강한 인간 공동체는 고대의 숲과 같다”고 한다. “고대의 숲에서는 작은 생물들은 큰 생물의 그늘에, 그리고 죽어버린 옛 것들에 뿌리 내리고 거주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죽어가는”(PW 138) 공동체 구성원끼리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스나이더의 염원이다.

이상적 공동체의 본보기로 스나이더는 「황갈색 문법」(“Tawny Grammar”)에서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공동체 생활과 삶의 지혜와 가치를 언급한다. 그는 이 부족 공동체의 생활방식이 곧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생명공동체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할머니의 지혜」(“grandmother’s wisdom”)라 불리는 시에서 ‘이누피아크의 가치 목록(Inupiaq values)’을 언

급한다. 겸손하며, 서로 협동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부족에 대한 책임감을 실천하라는 알래스카 원주민의 삶의 지혜는 스나이더가 거북섬에서 살아갈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삶의 지혜인 것이다. 스나이더는 이상적인 가치관의 부활과 생명공동체의 생활방식을 옛 방식으로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원주민들의 고유의 정신(Inupiaq spirit)을 통해 제시한다.

「위대한 가족에게 드리는 기도」(“Prayer for the Great Family”)는 스나이더의 생명공동체에 대한 바람을 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스나이더는 지구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한 가족으로 표현한다.

밤낮을 계속해서 항해하는 어머니 지구에게—
그리고 비옥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녀의 땅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
수억의 별들을 담고— 그리고 그 너머로 가며—
모든 힘과, 생각 저쪽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하늘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우주,
마음이 그의 아내이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모호크 기도문 식으로.

Gratitude to Mother Earth, sailing through night and day—
and to her soil: rich, rare, and sweet
in our minds so be it.

.....

Gratitude to the Great Sky

who holds billions of stars—and goes yet beyond that—
beyond all powers and thoughts
and yet is within us—
Grandfather Space,
The Mind is his Wife.

so be it.

after a Mohawk prayer (TI 24-25)

이처럼 스나이더는 자연에 대한 존중감과 감사와 존경을 모호크족의 기도 양식을 빌어서 어머니 대자연에게 바친다. 이는 대자연 앞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겸허를 나타내며, 구석기 시대 여신인 위대한 어머니(Magna Mater)의 존재를 찬양하는 기도의식을 통해 모든 자연물의 범신론을 찬양한다. 그러한 원시적인 마음을 담고 있는 시/노래/기도문은 스나이더에 의해 원시적인 존재의 실재를 명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Oelschlaeger 271). 거북섬의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지향하며, 생태지향적이고, 자연과의 상호의존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스나이더의 마음이 이 시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

스나이더는 우리 인간은 “지구라는 공동체의 관대한 청지기”(RW 55)로서 생존을 위해 다른 모든 생명 그룹에 의존하면서도,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모든 존재의 지구공동체를 지켜내야 하는 책임감을 피력한다. 스나이더는 좋아하든 말든 우리 모두는 작고 푸른 행성에서 결국에는 ‘거주’하고 있다. 해게모니적 논란은 제쳐두고, 사람과 자원 둘 다 지속적인 착취를 요구하는 경제학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지구를 우선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Devall & Sessions 재인용 159).

스나이더는 지역을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여러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상호공존의 삶의 터라는 인식을 할 것을 주장한다. 이 땅에 재거주한다는 것은 “거북섬의 ‘다시 태어난’ 원주민”(PS 234)이 된다는 뜻이다. 한 장소에 정착해서 살며 동식물의 생태와 습속을 잘 알고 자연과 상호의존하는 삶을 살아온 원주민의 옛 방식을 배워 나갈 때, “우

리는 한 장소의 일원이 되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PW 144).

재거주하는 삶은 산업문명 사회를 떠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장소)과 모든 존재들에게 헌신하는, 자연에 대한 집사로서의 책무를 실행하는 것이다. 재거주하는 지역의 생태활동을 익혀서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자연과 인간의 이상적인 상생을 실현한다. 스나이더는 미래의 후손들이 거북섬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해주고자 한다. 스나이더는 거북섬이라는 생명공동체에 더불어 살며, 땅과 그 장소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을 포함한 생명체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그는 자연과 인간이 상호공존하는 이상적 공동체에서 생태중심적 평등주의(ecocentric egalitarianism)를 실현하고 있다. 스나이더는 생태적 평등주의를 주장하면서, 지구라는 생명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연에게도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생태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한다.



V.결 론

스나이더는 오늘날 유례없는 자연파괴와 생태계의 재앙을 일으킨 주범으로 유대/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 서구 문명의 지나친 합리주의와 이원론적 세계관, 과학기술문명, 그리고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유대/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편리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찬미하고 강화해왔다. 인간중심주의와 지나친 합리주의가 낳은 교만과 이기심은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아로 인간을 변모시켜왔으며, 상호공존해야 할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 왔다. 과학기술문명의 엄청난 발전과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는 도시 문명의 이기와 더 없는 생활의 편리를 인간에게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인간이 누리는 풍요와 발전의 이면에는 숲의 파괴로 인한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와 생태계의 교란, 즉 자연의 못 생명체들을 절멸의 위기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인간 역시 고통받고 있다.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를 막고 잠재적인 생태적 재앙으로부터 인류와 자연 둘 다를 구하기 위해 스나이더는 북미 인디언들의 신화와 생활 습속, 동양의 선불교와 동양사상, 인도 철학 등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다. 북미 원주민들의 사냥 의식에서 보여주는 사냥 당하는 동물의 자기희생과 사냥 당한 동물에게 바치는 존중과 감사의 마음은 불교에서 모든 존재에게 베푸는 자비심과 일치한다. 스나이더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홀로 존재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연기의 법칙에 의거해서 모든 존재들의 상호연결성을 주장한다. 자연과 인간은 상호침투(interpenetration)하면서 상호의존(interdependence) 한다는 것을 ‘인드라 망’(Indra’s net)의 이미지를 통해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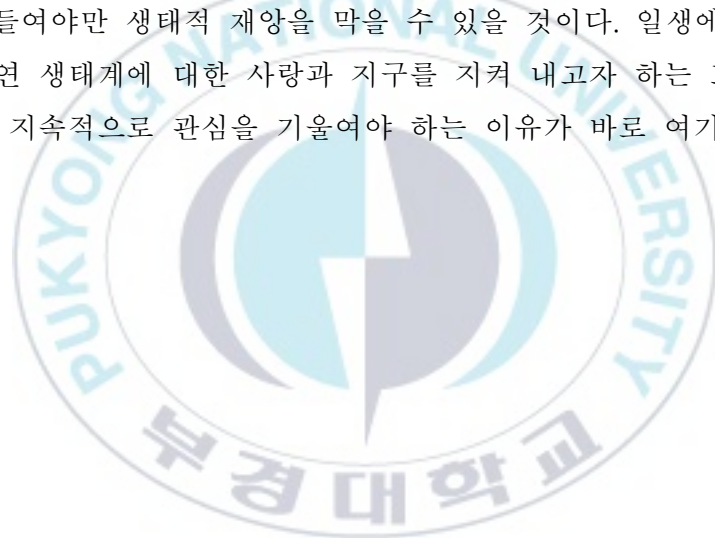
또한 스나이더는 생태계의 ‘인드라 망’ 안에서 일어나는 먹이사슬관계에서 모든 존재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 있다고 본다. 모든 존재는 윤

회를 통해서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기에 모든 생명을 중시하는 ‘아힘사’(ahimsa)의 실천을 스나이더는 현실에서 모든 존재에게 실행하기를 바란다. 스나이더는 아힘사의 실천이 위기에 빠진 생태계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생물지역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시에라 네바다 고도에서 재거주하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그가 실천하고 있는 거북섬에서 재거주하기는 지금까지의 도시문명 위주의 생활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연의 집사로서 자연에 대한 겸허와 존중감에서 비롯된 자연을 지켜내고자 하는 책임을 다하는 삶의 방식이다. 거북섬의 모든 존재들이 상호침투하면서 상호의존하는 전일적(holistic)인 생태적 평등(ecocentric egalitarianism)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그의 이런 실천지향적인 삶은 그가 주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그의 주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지구 전체를 이상적인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서 작금의 생태계 파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의 주장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렵다. 또한 ‘모든 존재들의 회의’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자연에 있는 동물, 식물, 생명이 없는 무정물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그의 주장은 일견 순진하고 무모하게 보일 수 있다.

스나이더가 이상적 공동체인 거북섬에서 생태학을 논하고 그의 시를 낭송할 때 미국 원주민의 복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백인이 원주민에게 바치는 존경과 존중의 표현이다. 하지만 위겟(Andrew Wiget)과 같은 비평가는 이는 스나이더가 원주민들의 전통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전용하려는 또 다른 찬탈행위(usurpation)로서 노골적인 형태의 문화적 제국주의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스나이더를 소위 백인 무당(white shaman)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윤희수, “미국 원주민” 재인용 258). 불교와 북미 인디언의 신화와 샤머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스나이더 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그의 시는 불교적 색채가 강해 관념적이고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비록 이상주의자로서의 한계도 있지만, 환경 위기에 봉착한 현대 문명에서 인간과 인간 외적인 자연을 포함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개념을 생성시켜서 심층 생태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스나이더의 시가 갖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나이더는 모든 생물체에 대한 존중감을 나타내는 ‘거북섬 관점’(Turtle Island View)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인간과 자연이 지속가능한 상호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위계질서나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적 사고의 해체가 요구된다. 하나의 거대한 존재론적 네트워크 안에서 인간도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생태적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일생에 걸친 스나이더의 자연 생태계에 대한 사랑과 지구를 지켜 내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용 문헌

- 구자광. 「‘생물지역주의’의 위험성과 가능성—게리 스나이더의 경우」. 『동서비교문학저널』 제19호(2008): 7-32.
- 김옥동.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녹색 문학과 녹색 이론』. 서울: 민음사, 1998.
- 김은성. 「게리 스나이더의 초기 작품 읽기—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영어영문학』 제49권 3호(2003): 423-47.
- 김호귀. 『선의 어록』. 서울: 민족사, 2014.
-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서울: 아르케, 2006.
- 신명화. 「게리 스나이더의 생물지역주의: 장소성을 통한 생태적 민주주의의 실현」. 『새한 영어 영문학』 제58권 4호(2016): 39-61.
- 윤희수. 「미국 원주민 시의 생태주의적 지향성에 관한 연구: 조이 하조(Joy Harjo)의 시를 중심으로」. 『외국문화연구』 제22호(2006): 255-75.
- _____. 「생태주의적 사고의 두 가지 유형: 스나이더와 올리버의 시」. 『새한 영어영문학회 2010년 봄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0): 33-41.
- 정석권. 「게리 스나이더의 생태학적/선불교적 상상력」. 『동서비교문학저널』 제29호(2013): 291-312.
- 진우기. 『달마, 서양으로 가다』. 서울: 불교시대사, 2002.
- 최석호. 「불교의 세계관에서 본 환경 문제」. 『창작과 비평』 제19호(2)(1991): 316-34.
- 최종석. 「생태 불교의 필요성과 가능성」. 『불교학보』 제42집(2005): 223-36.
- _____. 「21세기 환경 문화와 불교」. 『생명연구』 제4집(2001): 379-90.
- Almon, Bert. *Gary Snyder*. Caldwell: The Caxton Printers, 1979.
- _____. “Buddhism and Energy in the Recent Poetry of Gary Snyder.” *Critical Essays on Gary Snyder*. Ed. Patrick D. Murphy. Boston: G. K. Hall, 1991. 80-89.
- Barnhill, David Landis. “Great Earth Sangha: Gary Snyder’s View of

- Nature as Community." *Buddhism and Ecology*. Eds. Mary Evelyn Tucker and Duncan Ryuken Williams. Cambridge: Harvard UP, 1997. 187-218.
- Bate, Jonathan. *The Song of the Earth*. Cambridge: Harvard UP, 2002.
- Berg, Peter, and Raymond Dasmann. "Reinhabiting California." *The Ecologist* 7.10(1977): 399-401.
- Capra, Fritjof. "Deep Ecology: A New Paradigm."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Readings on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the New Environmentalism*. Ed. George Sessions. Boston: Shambhala, 1995. 19-25.
- Carolan, Trevor. "The Wild Mind of Gary Snyder." *Shambhala Sun* (May, 1996): 18-26.
- Castro, Michael. "The Lessons of *Turtle Island*." *Critical Essays on Gary Snyder*. Ed. Patrick D. Murphy. Boston: G. K. Hall, 1991. 131-43.
- Chatraporn, Surapeepan. "The Doubly Eastern Snyder: Zen Buddhist Philosophy and Poetics in Selected Short Poems by Gary Snyder." *MANUSYA: Journal of Humanities Regular* 12.1 (2009): 53-72.
- Dean, Timothy. *Gary Snyder and the American Unconscious*. New York: St. Martin, 1991.
- Devall, Bill, and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Mattered*. Salt Lake City: Gibbs M. Smith Book, 1985.
- Glotfelty, Cheryll. "Introduction: Literary Studies in an Age of Environmental Crisis." *Th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Eds. Cheryll Glotfelty, and Harold Fromm. Athens: U of Georgia P, 1996. xv-xxxvii.
- Glotfelty, Cheryll, and Harold Fromm. eds. *Th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Athens: U of Georgia P, 1996.
- Halifax, Joan. *The Third Body: Buddhism, Shamanism, & Deep Ecology*.

- Berkeley: Parallax P, 1990.
- Janik, Del Ivan.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n Modern Literature: Four Representative Examples."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Readings on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the New Environmentalism*. Ed. George Sessions. Boston: Shambhala, 1995. 104-12.
- Kern, Robert. "Silence in Prosody: The Poem as Silent Form." *Critical Essays on Gary Snyder*. Ed. Patrick D. Murphy. Boston: G. K. Hall, 1991. 105-21.
- Love, Glen A. "Revaluing Natur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Eds. Cheryll Glotfelty, and Harold Fromm. Athens: U of Georgia P, 1996. 225-40.
- Lynch, Tom, Cheryll Glotfelty, and Karla Armbruster. "Introduction." *The Bioregional Imagination*. Eds. Tom Lynch, Cheryll Glotfelty, and Karla Armbruster. Athens: U of Georgia P, 2012. 1-29.
- Macmillan, Leslie. "Black Mesa mines: Native Americans demand return of their ancestors' bones." *theguardian.com*. Guardian, 10 Dec. 2014, <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4/dec/10/black-mesa-mines-native-americans-demand-ancestral-bones-navajo>. 17 Jun. 2016.
- Molesworth, Charles. "The Political and Poetic Vision of *Turtle Island*." *Critical Essays on Gary Snyder*. Ed. Patrick D. Murphy. Boston: G. K. Hall, 1991. 144-56.
- Murphy, Patrick D. *Understanding Gary Snyder*.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1992.
- Naess, Arne. "The Deep Ecological Movement."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Readings on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the New Environmentalism*. Ed. George Sessions. Boston: Shambhala, 1995. 64-84.

- Oelschlaeger, Max. *The Idea of Wilderness: From Prehistory to the Age of Ecology*. New Heaven: Yale UP, 1991.
- Paul, Sherman. *In Search of the Primitive: Regarding David Antin, Jerome Rothenberg, and Gary Snyder*.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86.
- "Ring of Bone Zendo" *ROBZ Brochure* ringofbonezendo. Dec. 2015. <www.ringofbonezendo.org/images/12-2015zendobrochure>.
4. Jun. 2017.
- Rueckert, William. "Literature and Ecology."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Eds. Cheryll Glotfelty, and Harold Fromm. Athens: U of Georgia P, 1996. 105-23.
- Schuler, Robert Jordan. *Journeys toward the Original Mind: The Long Poems of Gary Snyder*.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9.
- Scigaj, Leonard M. *Sustainable Poetry: Four American Ecopoets*. Lexington: UP of Kentucky, 1999.
- Sessions, George. "Preface."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Readings on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the New Environmentalism*. Boston: Shambhala, 1995. ix-xxviii.
- _____. ed.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Readings on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the New Environmentalism*. Boston: Shambhala, 1995.
- Shepard, Paul. "Ecology and Man—a Viewpoint."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Readings on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the New Environmentalism*. Ed. George Sessions. Boston: Shambhala, 1995. 131-40.
- Snyder, Gary. *Axe Handles*. San Francisco: North Point, 1983.
- _____. *Back on the Fire*. Berkeley: Counterpoint, 2007.
- _____. "A Brief Account of the Ring of Bone Zendo, I." *Ring of*

- Bone Zendo Newsletter* 15 Oct. 1986: 8-9.
- _____. *Earth House Hold: Technical Notes & Queries To Fellow Dharma Revolutionaries*. New York: New Directions, 1969.
- _____. "Grace." *CoEvolution Quarterly* 43(Fall 1984): 1
- _____. *Myths & Texts*. New York: Directions, 1978.
- _____. *No Nature: New and Selected Poems*. New York: Pantheon, 1992.
- _____. *Old Ways*. San Francisco: City Lights Books, 1977.
- _____. *A Place in Space: Ethics, Aesthetics, and Watersheds*. Washington, D. C.: Counterpoint, 1995.
- _____. *The Practice of the Wild*. San Francisco: North Point, 1990.
- _____. *Turtle Island*. New York: New Directions, 1974.
- _____. *Turtle Talk: Voices for a Sustainable Future The New Catalyst Bioregional Series*. Eds. Christopher Plant, and Judith Plant. Philadelphia: New Society Publisher, 1990.
- Steuding, Bob. *Gary Snyder*. Boston: Twayne, 1976.
- Taylor, Bron. "Bioregionalism: An Ethics of Loyalty to Place." *Landscape Journal* 19. 1 & 2 (2000): 50-72.
- White Jr. Lynn. "The Historical Roots Our Ecological Crisis." *Th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Eds. Cheryll Glotfelty, and Harold Fromm. Athens: U of Georgia P, 1996. 3-14.
- wideways. "가이아 이론(Gaia Theory) 거대한 유기체로서의 지구를 논하다." 2 Feb. 2010, <<http://wideways.tistory.com/115>>. 8 April 2017.
- Yamazato, Katsunori. "How to Be in This Crisis: Gary Snyder's Cross-Cultural Vision in *Turtle Island*." *Critical Essays on Gary Snyder*. Ed. Patrick D. Murphy. Boston: G. K. Hall, 1991. 230-46.
- _____. "Kitkitdizze, Zendo, and Place: Gary Snyder as a Reinhabitory

Poet.” *The ISLE Reader: Ecocriticism*, 1993–2003. Eds.
Michael P. Branch and Scott Slovic. Athens: U of Georgia P,
2003. 10–21.

